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오직 지으심을 받은 그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욥기 12장 10절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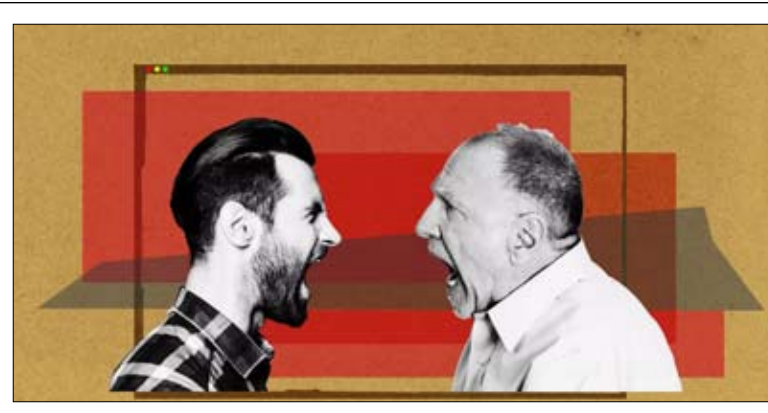
CT, 시한부 남편과 하나님 은혜 경험한 김 쿠오의 조력자살 반대 이유 소개

최근 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강력히 반대하는 오랫동안 지속된 정책을 재확인했다. 세계의사회 제70차 총회에서는 전 세계의 의사들과 심도 있는 협의과정을 거쳐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선언문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은 '세계의사회는 의료윤리의 원칙에 대한 강력한 헌신을 지속적으로 쏟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이 최고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 그러므로 세계의사회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역시 의사윤리강령을 통해 "의사가 자살을 지원하는 것은 치유자

로서의 의사의 역할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며, 통제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혔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조력자살을 옹호하는 것은 생의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남편과 함께 믿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아내(Kim kuo)의 간증을 통해, 우리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한다 (Assisted Suicide and Real Death with Dignity: Advocates say that choosing when we die is a fundamental right. My late husband thought otherwise).



당신도 "OK, Boomer" 로 불릴 수 있다!

CNN, 뉴질랜드의회 연설과정에서 화제 된 신조어 유래와 배경 소개

20세기 말에 태어나 2000년이 됐을 때 청소년이거나 어린이였던 세대를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2000년 이후 태어나 지금 청소년이거나 어린이인 세대를 Z세대(Generation Z)라고 부른다. 그런데 최근 Z세대부터 밀레니얼을 아우르는 어린/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다. "OK, Boomer."

OK는 말 그대로 알았다는 뜻이고, Boomer는 베이비붐 세대, 즉 (특히 나이 든) 어른을 뜻한다. 우리말로 순하게 옮기면 "어른들은 몰라요, 그러니 그만 하세요." 정도가 될 테고, 좀 더 직설적으로 옮기면 "고지식한 소리 집어치우세요, 듣기 싫어요." 정도가 될 것이다. 비속어를 쓰지 않는 선에서 더 노골적으로 옮겨보면 "늙은이들아, 헛소리 집어치워, 시끄러우니까"까지도 가능하다. 맥락에 따라 워낙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인 만큼 어느 하나를 정답이라고 하기 어렵다 (New Zealand lawmaker shuts down heckler: 'OK, boomer').

오케이부머라는 말이 소셜미디어에서 회자하기 시작한 건 올해 초부터다. 그러다 이달 초 뉴질랜드 의회에서 녹색당 소속 클로에 스와브릭(Chloe Swarbrick) 의원이 연설 중에 이 말을 하면서 많은 언론이 이 말의 의미와 유래, 과정을 논하기 시작했다. 영상을 보면 스와브릭 의원 뒤에 앉아서 연설

을 들던 제임스 쇼 녹색당 대표도 스와브릭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몇 초 동안 의아해 하다가 뒤늦게 알아차린다. 뉴질랜드 국회 자막팀도 'OK, Berma'라고 잘못 적었다(나중에 자막팀은 트위터에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며,

(3면으로 계속)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국가의 법이 우리의 신앙과 완전히 일치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는 "죽을 권리"라는 신조에 맞설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명백한 두 가지 원리를 고린도전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6-17).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

나에게 이 문제는 단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많은 CT 독자들이 잘 알다시피 백악관 공공정책실 종교담당관이었던 내 남편 데이비드 쿠

오는 존엄성과 용기를 가지고 암과 싸웠다. 데이비드는 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대체요법, 임상실험을 거치면서 10년을 버텼다. 그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 감정에 손상을 입었지만, 데이비드는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들에 우리를 온전히 맡겼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다짐했다. 하나님께서 데이비드를 고

치시킬 수 있다고, 설사 고쳐주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데이비드가 살아있는 날들을 온전히 사용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었으며 그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

데이비드가 6개월에서 12개월 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2003년부터 세 번씩이나 들었다. 데이비드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진단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마지막 날을 결정하는 것은 하

남님께서 하실 일이지 사람이, 설사 의사라 할지라도 할 수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내 깨달았다.

진단을 받고서 메이나드는 자신이 죽을 날을 정했다. 그녀와 똑같은 진단을 받은 데이비드는 그 뒤로 10년을 더 살았다. 그 동안에 우리는 예쁜 두 자녀를 갖게 되었고, 데이비드는 암과 씨름하고 싸우면서도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나님의 보좌 아래 있는 그 누구도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나아갈지 예견할 수 없으며, 앞날을 아는 척해서도 안 된다.

메이나드처럼 데이비드도 곁을 수도 없을 때가 수없이 많았다. 나중엔 글도 쓸 수 없게 되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 투약의 부작용으로 성격도 확연히 변했다. 갈수록 걱정과 좌절과 분노가 쌓여 갔다. 명랑했던 얼굴도 어두워졌다. 임종을 앞뒀을 땐 처참했다. 몸의 모든 기능이 서서히 무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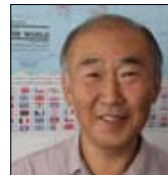
(3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한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인/티/뷰 이금범 선교사(안경사역) 14면

ATS와 ABHE 권위인 최고의 온라인 교육 월드미션대학교 신학 / 상담학 / 음악학 / 간호학 / 유아교육 / 가정사역 / NGO사역 캠퍼스 | 온라인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북스톡 / 성경 / 생애 역사 / 기쁜 / 교재 / 영성 / 영안기부회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 201)346-003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역 상담, 영성공역기, 생가독집 주문 제작, 타월, 선불 주문 제작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이·취임식

53년간 남가주 기독교계와 남가주 한인 사회를 섬겨온 남가주한인목사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남가주한인목사회를 도우신 성도님들과 교민들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 회장 이정현 목사와 남가주한인목사회 53대 임원 일동

일시 : 2019년 12월 8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미주 평안 교회(임승진 담임목사)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문의 : T.(213)272-6031 남가주한인목사회 부회장 엘리야김 목사



이임 회장 52대 김관진 목사



취임 회장 53대 이정현 목사



발행인 칼럼

그는...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그는...” 잡지의 침묵이 흘렀다. 당사자는 물론 그 모임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긴장하는 빛이 역력했다. 마침내 나는 말을 이어갔다. “그는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지난 한해의 사역을 보고하고 신년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인 연말당회에서 EM 사역자의 보고와 발표가 있는 후 어느 장로님의 질문이 있었다. 질의와 응답의 의미있는 시간들이 지나고 마지막 평가랄까 결론에서 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보다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나는 그 때 보았다. EM 사역자 눈이 붉어지는 것을. 나는 후에 들었다. 그 모임에 참석했던 한 분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나도 몰랐다. 내가 왜 그 때 그런 말을 거기서 했는지, 사역에 대한 보고시간이었으니 평소처럼 사역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 되었는데 왜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게 되었는지. 그 회의를 마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음이 왔다. 마지막에 더 중요하게 남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되었다.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에서 박인환 시인은 옛날은 남는다고 했다. 그 옛날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그가 잊지 못한 옛날은 어떤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사라지는 세월 속에 사람은 남는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남는다. 지난 추수감사절 밤에 교회에서 예배와 만찬이 있었다. 그 때 한 교우의 간증도 있었다. 그의 남편은 지난 3월에 아내와 네 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그 장례식 얼마 후 버거운 삶에 남겨진 그의 아내가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그 편지에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는 난로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주위에는 친구들, 사람들이 많아요.” 떠난 남편의 마음이 난로처럼 따뜻했다고 기억하고 그리워했다.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남편을 좀 더 알아주지 못하고 더 잘 챙겨주지 못했던 아픔을 편지위에 토로했던 그가 8개월 만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의 사랑에 고마워하며 여전히 남편이 그림자만 자녀들과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감사절 날 들려주었다.

일, 일, 그리고 또 일. 연말이 되어 잠시 올해 나의 달려온 길을 돌아보니 일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 연말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야 할 시간이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내 시간의 끝자락에는 과연 무엇이 감겨있을 것인가. 우물쭈물 하다가 색바랜 지난 나의 일정표가 그 끝자락에 감겨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말하기가 많이 속스럽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 어찌겠는가. 알아서 나라도 말해야지. 사실, 연말당회의 그 날 그 순간만큼은 내가 꽤 괜찮았다. EM 사역자의 사역보고를 듣고 “그 일은...”이라고 운을 띄우지 않고, “그는...”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그 짧은 순간은 다소 서먹했던 EM 사역자와 KM 사역자가 추운 겨울 따뜻한 난로에 다가가는 것 같이 서로에게 가까이 가는 시간이기도 했다.

AI 통제 안 되면 인류말살 가능성 있다!

BBC, AI 전문가 스튜어트 러셀 교수 인터뷰 보도

스티븐 호킹부터 엘론 머스크까지 인공지능(AI)에 관한 세계 최고의 지성들은 AI가 인류에 실존적 위협을 제기한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한 책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자각을 하고 인간 주인에게 반기를 드는 로봇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가 만든 목표를 너무 능숙하게 처리해서, 무심코 잘못된 목표를 주었을 때 인류를 말살시킬 수 있는 기계다.

버클리 대학의 스튜어트 러셀 교수가 쓴 책, “양립할 수 있는 인간: AI와 통제의 문제(Human Compatible: AI and the Problem of Control)”에 나온 이야기다. 러셀 교수는 머신러닝으로 인한 변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다(AI could become 'an enemy of the human race' warns expert: Leading artificial intelligence expert Dr Stuart Russell warns in his new book, Human Compatible: AI and the Problem of Control, that AI could become "an enemy of the human race").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할리우드 밈(The Hollywood meme)이라는 책에서는 항상 기계가 자연스레 의식을 갖게 되고, 인간이 싫다는 판단을 내려 인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봇은 감정이 없으므로 “그것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로봇이 가지는 사악한 의식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못 지정한 목표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내는 그 능력이죠.”

러셀 교수는 BBC투데이(BBC's Today) 프로그램에서 AI가 제기할 수 있는 진짜 위협에 대한 가상의 예를 들었다.

지구의 기후를 조절할 수

(CSER·Centre for the Study of Existential Risk)에 따르면, 현재 AI 시스템 대부분은 한 영역 안에서 지정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화돼 있다.

이 분야의 획기적인 순간은 1997년이였다. 컴퓨터 '딥 블루(Deep Blue)'가 체스 세계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6번의 대국에서 물리쳤다.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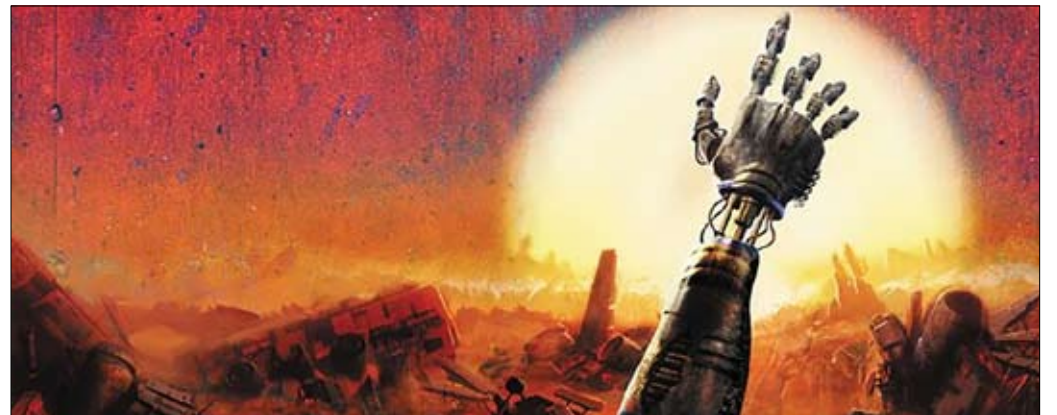
시스템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더 보편화되면서, 많은 또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성취보다 더 우수한 슈퍼 지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셀 교수는 이것이 다시 통제력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그는 인공지능

들이 이를 수행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시스템이 목표를 모른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인류를 따르게 되죠. AI가 일을 하기 전에 허락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로봇은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러셀 교수는 결정적으로 로봇들이 “우리가 꺼리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기계가 스스로 전원을 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AI를 만드는 방식은 어쩌면 램프의 요정 지니와 비슷하다”며 “램프를 문질러 지나가 나오면, ‘이게 생겼으면 좋겠어’라고 말한다”고 했다.



인간이 잘못된 목표 입력하면 재앙 될 수 있어 인류 스스로 그 목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

있는 강력한 AI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리고 우리는 이산화탄소 수치를 산업화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인류를 해치는 것 빼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라.’ 그럼 시스템은 무엇을 할까요? 인류가 남아나지 않을 때까지 아이를 적게 낳도록 인류를 설득할 겁니다.”

이 예는 AI이 인간이 미처 모든 걸 다 고려하지 못한 지시에 따라 행동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강조한 것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산하 실존적 위험 연구 센터

지만 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딥 블루는 체스를 두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순한 체커 게임에서는 인간에게 패배할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 발전된 AI는 다르다. 예를 들어 알파고 제로(AlphaGo Zero)는 자신을 상대로 바둑을 둔지 겨우 3일 만에 초인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알파고 제로는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인 ‘딥러닝’을 사용했다. 인간의 프로그래밍이 될 필요했고, 바둑과 체스, 쇼기에 대단히 능숙한 면모를 보였다. 놀랍게도 알파고 제로는 거의 완전히 독학으로 이를 이뤄낸 것이다.

실존적 위험 연구 센터는 “AI

에게 보다 정확한 목표를 주는 게 이 딜레마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류 스스로 그 목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며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체 기반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로봇에게 고정된 목표를 지정해주고, 로봇

“만약 AI 시스템이 충분히 강력하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해내고 우리는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을 겁니다. 그런데 램프의 요정에 나오는 문제점은 세 번째 소원이 항상 ‘앞선 두 개의 소원을 취소해줘, 목표를 잘못 정했어’라는 겁니다.”


“놓지 않은 목표를 추구하는 기계는 사실상 인류의 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p>·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213) 674-7982 (대표) (323) 965-0009 (광고국) · E-mail: lachpress@gmail.com</p>	<p>·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 Fax: (718) 886-0074 (대표) · E-mail: nykch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0, July 6, and Nov 30.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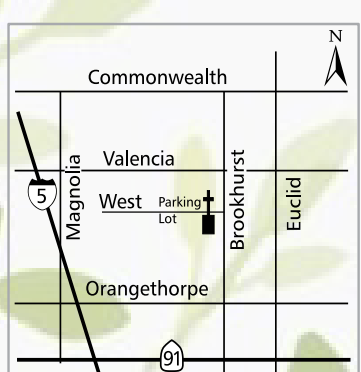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뢰울 말씀은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45년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번에 귀한 예식을 가지고저 하오니

(노진걸 원로목사 추대 및 황인철 담임목사 취임예배)
오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2019년 12월 8일(주일) 오후 4시
장소: 홀러톤장로교회
511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714) 446-9010
설교: 서정운 목사(장로회 신학대학교 명예 총장)
집례: 해외한인장로회 서중노회 노회장 용장영 목사

홀러톤 장로교회 당회원 및 교우일동



* 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1면에서 계속)

그래도 데이비드의 하루하루는 소중했다.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됐을 때도 데이비드는 중환자실 의사에게 ‘순전한 기독교(Mere Christianity)’를 읽어보라고 권했다.

데이비드와 노숙인 암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신경종양과 전문의는 훗날 실제로 그 사역을 시작했다. 데이비드의 마지막 날들은 적대 관계에 있던 정치인들과 화해하고 친구와 가족들 사이에 있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고통의 시기에 우리는 더욱 담대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진다.

2011년 췌장암으로 죽은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대학교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말을 했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천국에 가기 원하는 사람조차 그곳에 가기 위해 죽고 싶어 하지 않지요. 그러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종착지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야말로 삶이 만드는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데이비드와 나는 우리와 함께 암과 싸웠던 수십 명의 친구와 가족들 가운데서 스티브 잡스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았던 10년 동안, 죽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했고, 우선순위를 다

시 세웠으며, 하나님과 공동체와 더욱 깊은 교제를 이뤘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오히려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우리 삶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우리 삶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힘든 과제다. 불치병 환자에게 대한 공개정책 토론을 펼칠 때 우리는 연민에 빠진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들을 돕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했듯이, 조력자살은 “연민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든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지은 것과 똑같은 죄, 곧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다.

진정한 긍휼은 시한부 환자들을 사랑하고, 돕고, 완화치료(palliative care)를 받게 하면서 그들 곁에 있는 것이다. 호스피스 케어를 통해 죽음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죽음은 몸과 영을 가혹하게 갈라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감정입이에 근거해 대중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보라. 조력자

살이 정책으로 시행된다면 누군가가 그 구체적인 대상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어린아이들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까? 정신 질환자는 어떻게 할까? 환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들어가는 비용에 따라 결정해야 할까? 조력자살이 합법인 오리건 주의 보건당국은 최근까지 생존율이 낮은 암 치료처럼 의료비용이 많이 드는 곳에 의료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독극물 예산은 책정했다.

조력자살이 합법이 된 나라에서 안락사-환자의 생명을 끝내기 위해 의사가 (독극물 주입 같이) 직접 시행하는 조력자살과는 다른 것이다-가 부쩍 늘었다.

2014년 벨기에에서 “자비로운 살인”의 수는 27% 증가해 평균 하루 5명에 이르렀다. 벨기에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시한부 어린이들도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조력자살이 불법이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법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이 나라에는 집에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동안락사유닛이 있다. 삶이 단지 지켜워진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안락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을 만들 준비도 하고 있다. 영국이 조력자살 합법화를 고려하고 있을 때, 네덜란드의 윤리학자 테오 보어는 영국 상원에서 이렇게 말했다.

“영국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비탈길은 정말 미끄럽습니다.” 이 말은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조력자살 논쟁에서 핵심이 되는 질문의

정곡을 찌른다. 우리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미국 사법체계의 기본원칙은 무죄추정이다. 무고한 한 사람이 고통 받느니 차라리 법인 10명을(나중에는 100명으로 늘어났다) 놓아주는 것이 낫다.

이 원칙은 정부와 법원이 무죄에 무게를 더 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원칙은 창세기 18장,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소돔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탄원의 연장선 위에 있다.

“자비로운 살인”에서 변론을 맡는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법안을 확대한다면, 세금이나 자원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을 것이다.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들의 장례기록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벨기에에 조력자살의 32%가 환자의 동의 없이 행해졌다.

스위스에서는 어느 건강한 여성이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끔찍하다는 이유로 조력자살 비용 2만 달러를 지불했다. 나중에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화장한 재와 사망진단서를 받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벨기에에서 극심한 좌절감에 빠진 한 여성이 가족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안락사를 시행했다. 자살을 지지하는 정책을 폭넓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런 “변칙 조력자살”을 막을 셰이프가드를 마련하는 데는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닐까?



시론

진보와 보수를 넘어



최해근 목사 (공교메리교회)

요즘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와 떠나온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체를 달구고 있는 뉴스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내용이고 한국은 보수와 진보가 한 발 자국도 뒤로 물러섬이 없는 치열한 이념갈등과 이로 인한 국민 정서의 불안입니다.

두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는 정치가 국민들의 마음을 양편으로 가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요즘은 누가 어떤 뉴스를 주로 보느냐에 따라 각 사람의 생각과 말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과는 달리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미국은 미디어의 뉴스에 대해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Reuters Institute - Digital News Report).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미국인들 가운데서는 51%가 언론의 뉴스를 신뢰한다고 말하는 반면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미국인들 중에서는 겨우 20%만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미국인들의 절대다수(80%)가 뉴스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고 대신 자신들의 입장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 그런 뉴스만을 신뢰하는 경향을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좌우의 편차가 심각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유럽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 쉽게 표현해 본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CNN을 보느냐 Fox news를 보느냐 따라 현격하게 다른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한국은 조선일보를 읽느냐 한겨레를 읽느냐에 따라 정치나 경제뉴스를 접하는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사고의 이질감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찬반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있었습디만 오늘날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찬반의 차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은 갈등과 아픔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정치 지도자가 설령 바뀐다 하더라도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과 사상은 쉽게 회복되거나 융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상가들이 새로운 세기에는 이전의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다양성’과 ‘관용’이 넓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절대적 진리보다는 상대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이 더 넓게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피부를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 거부감과 투쟁의 본성이 우리 사회에 점점 만연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가 생각해 보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가 우리 시대처럼 다양한 기술과 문화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성은 모자랐지만 식민지 국가와 지배국가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격렬했습니다. 지배국가인 로마 편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피지배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위선으로 채워진 종교적 근본주의자들과 그들로부터 무시 받던 사회적 약자들이 늘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주님이 취하신 자세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택하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적어도 두 그룹 이상 양극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배국가에 협조하고 동조하며 살아가려는 세리적인 삶의 방식과 그런 기생충 같은 사람을 제거해야 한다고 믿는 과격한 사상기조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제자의 부름을 받았습디다. 그들은 부름을 받은 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고 마침내 나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하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양극의 시대를 살면서 주님은 ‘원칙과 사랑’이라는 두 기둥을 온 몸으로 지켰습니다. 항상 성경적 원칙을 중요시하셨고 그 원칙에서 무너진 사람들을 사랑과 관용으로 치유하고 수정해주시고 새롭게 바꾸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돌아보는 12월을 맞으며 그분의 원칙과 사랑이 더욱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thechoi82@yahoo.com

당신도 “OK, Boomer” 로 불릴 수 있다!

(1면에서 계속)

앞으로 소셜미디어에서 밀레니얼들이 자주 보는 밈(meme)을 열심히 쟁겨보며 신조어도 공부하겠다고 밝혔

다. CNN이 뉴욕타임스 문화부의 테일러 로렌즈 기자와 오케이부머 현상에 관해 나눈 이야기를 요약해 정리했다.

먼저 스와브릭 의원의 연설 가운데 ‘오케이부머’가 언급된 장면을 정리하면 이렇다: “2050년이 되면 저는 56살이 됩니다. 이번 회기에 선출된 의원님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죠.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얄은 탄식이 나오고, 이내 야유 혹은 조롱조의 소리도



잠시 들림) 오케이 부머. 기존의 정치 제도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함몰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를 다

루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클로에 스와브릭 의원).

뉴욕타임스의 로렌즈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오케이부머라는 말이 등장한 건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였다. 기성세대를 비난하는 이들이 “제발 베이비붐 세대는 입을 좀 닫아버리면 좋겠다(shut the heck up boomers)”는 짤(meme)을 만들었다. 이 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된 소셜미디어는 틱톡이었다. 이용자들의 평균연령이 더 낮은 서비스로, 베이비붐 세대는 특히 잘 이용하지 않는 소셜미디어다.

오케이부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를 두고 대단히

모욕적(offensive)이며, 나이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차별하는 것(ageism)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로렌즈 기자는 오케이부머가 노인 차별이라면, 기성세대가 밀레니얼이나 어린이들을 향해 “요즘 젊은것들은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조언을 가장한 간섭을 해온 것도 나이를 토대로 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설명한다. 평생 가장 풍요롭게 살아온 기득권 세대가 세대 경험을 공유하지 못한 다른 이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거로 따지면, 베이비붐 세대만한 세대가 없다는 이유다.

(5면으로 계속)

AZUSA AWESOME NIGHT!

2019 아주사 송년 모임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ZUSA 동문,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반갑고 즐거운 송년모임을 마련했습니다. 오랜만에 동문들과 만남을 통해 선후배 간의 마음 따뜻한 교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동문 여러분 모두 꼭 오세요!!!

일시 2019년 12월16일 월요일 오후 6시
장소 새생명비전교회(담임목사 강준민) 소예배실
(4226 Verdant St. LA, CA 90039)

동문회비: \$20, \$50, \$100, 기타
도네이션 보내실 때 To: APU Korean Alumni (한인동문회)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승광철 목사
(661)618-9392,
송희진 전도사
(818)497-1964

* 작년과 같이 경품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었습니다.



AZUSA PACIFIC UNIVERSITY

아주사퍼서픽대학교 한인동문회 APU Alumni Korean Chapter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이런 교우... 처음 봅니다!

3, 40년을 교회에 다니면서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는 교우가 새가족반에 참여했습니다. 소그룹이라 개인적으로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목사는 안타까움을 갖고 복음을 잘 설명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가르쳤습니다. 일반적인 면에서도 세례의 유익에

대해서 온갖 설명을 다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오늘날 세례무용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먼저 예수님이 분을 보여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의를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받아들여주시고 이번 기회에 꼭 세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영

접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꼭 목사님... 하면서 사족을 달고 나섰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여의도 큰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도원에서 가셔도 여러 번 금식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들 하시는 행위를 보고 저는 세례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 교인이 담임목사 한 번 만나려고 하는데 경호원들이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만나 주시고 일부러 찾아가 주셨는데 목사가 무슨 대단한 벼슬입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분은 이민교회 목사에게도 시험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교회 바자회에 많은 상품을 기증했는데... 기용어가는 사업에 보탬이 될까 해서 세금 감면서 한 장을 부탁했는데... 그것이 불법도 아닌데...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 감면서 하나 써주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또 실망을 했습니다. 이분 생각으로는 교회가 당국의 설립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운영단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착함과

선함을 최대한 믿고 살아가는 이 새가족에게는 그런 교회를 불법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모범이 되고 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하자가 없는 교회와 지도자들 즉 완전한 교회에 대한 허탈감으로 인하여 이 새가족은 지금까지 세례의 필요성을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례 받고 성도답게 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자신처럼 세례 받지 않고도 선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자기 의의 확신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을 올려 설명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접붙이는 의식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의식입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에 세금을 감면해서 한 장을 부탁했는데... 그것이 불법도 아닌데...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 감면서 하나 써주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또 실망을 했습니다. 이분 생각으로는 교회가 당국의 설립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운영단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착함과

음의 수양이나 도덕적 선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고백을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고백할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받아주시는 필수적인 예식으로 세례가 절대적인 의식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겠습니까? 상황이냐 주변사람들 때문이지 말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물론 실망스러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교회와 목사가 싫다고 예수까지 버리는 것은 마치 야기의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기까지 버리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는 것이 옳습니까? 또 아무리 병원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입원비 수술비 돈만 쟁건다고 해서 아들이 아프면 병원에 안가겠습니까? 목사가 부족하고 교회가 미숙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주님과 나의 일대일의 관계회복입니다. 물론 지체들과 영적 연합하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모두가 불완전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양병원장도 결국 암으로 별세하는 것 알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참죄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면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시간 이상 복음을 설명하고 세례에 대해서 온갖 모양으로 열심히 가르쳤지만 기어코 금년 하반기 성례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평생 묵화하면서 나 이런 교우 처음 봅니다. 참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능력이 부족한 목사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것임을 알면서 목사는 지금도 또 주님의 강력한 깨달음과 믿음을 속히, 강하게 이 교우에게 부여주시길 오늘도 또 기도합니다. jkim47@gmail.com

푸/른/초/장

정기태 목사
(뉴욕새벽별장교회)



할렐루야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업이나 나라나 모든 단체들을 보게 되면 모든 단체가 성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성장을 균형 잡힌 성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한 나라가 잘 세워지려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야 하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며 같이 발전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같이 성장할 때 그 나라가 바로서는 것처럼 교회가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교회가 모든 부분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바른 성장'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지역이었고 처음으로 전도해서 복음이 증거된 곳은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다녔던 것은 복음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선교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쳐 죽이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쓰러진 바울을 중심으로 둘러섰던 것은 바울의 상태를 알아보고 죽었으면 장례 절차를 집행하기 위함이었습니. 그런데 바울은 죽음을 이룰 만큼 깊은 상처를 입고 고통의 신음을 하고 있었을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하며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가 성장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 해야 합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본문 21절에 '복음을 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보게 되면 후반부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마을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 사하셨 습니다. 모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변화된 삶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 되어진 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바른 성장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는 주님의 제자를 삼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

쁘고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삶의 현장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말씀훈련, 기도훈련, 성경공부, 전도훈련 등이 꼭 필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디모데가 충성된 자를,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은 것처럼 교회가 제자 삼을 때에 교회가 바르게 성장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니시던 그들은 훈련한 것처럼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삼는 것에 힘을 다하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 받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의 바른 성장은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찬양가령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본 절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고'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의 삶이 어떤 상황이 있을 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서울대 교수였던 김만도 교수의 사회의 청년생들을 위하여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책을 통하여 이 세상의 어려운 사회 현실을 냉정하게 제시해줌으로서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잘 대처해 나가기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근심, 걱정이 없는 행복한 삶만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 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라는 말씀처럼 오히려 더 큰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천 번을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

'헤세드'는 '하싸드'라는 '사랑하다', '연모하다', '자비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하나님의) 열심, '친절', '은혜, '인자', '자비', '은총, '시기, '질투, '궁핍' 등을 의미합니다. '헤세드'는 일반적인 '은혜', '자비', '궁핍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은혜', '자비', '궁핍'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사람, 두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인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도들 서로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부탁하는 것이 아름답고 바른 교회의 성장인 것입니다. 여섯째로 교회의 바른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부탁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26절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름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교회의 바른 성장

사도행전 14장 19-28절

교회의 존재 목적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 헬라이어 '은혜'(카리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 인지를 알게 되는 만남과 깨달음의 감격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그리고 히브리어 '헤세드'는 '은혜(은혜, 자비, 인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은혜)'는 에메트(진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진리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총망하게 나타난 것인데 그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 헬라이어 '은혜'(카리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 인지를 알게 되는 만남과 깨달음의 감격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그리고 히브리어 '헤세드'는 '은혜(은혜, 자비, 인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은혜)'는 에메트(진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진리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총망하게 나타난 것인데 그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 헬라이어 '은혜'(카리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 인지를 알게 되는 만남과 깨달음의 감격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그리고 히브리어 '헤세드'는 '은혜(은혜, 자비, 인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은혜)'는 에메트(진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진리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총망하게 나타난 것인데 그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 헬라이어 '은혜'(카리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 인지를 알게 되는 만남과 깨달음의 감격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그리고 히브리어 '헤세드'는 '은혜(은혜, 자비, 인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은혜)'는 에메트(진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진리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총망하게 나타난 것인데 그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 헬라이어 '은혜'(카리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 인지를 알게 되는 만남과 깨달음의 감격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그리고 히브리어 '헤세드'는 '은혜(은혜, 자비, 인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은혜)'는 에메트(진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진리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총망하게 나타난 것인데 그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2019년이 한달 채 남지 않았다. 돌아보면 고통스런 아픔과 후회 등의 아쉬움들이 남아있다.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였지만, 생각만큼 열매가 풍성치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다. 그럼에도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위로는 한결 같이 풍성하시다. 회개의 기도무릎 가운데 주님은 친히 찾아와 위로의 음성을 건네주신다. '종이 뭘 걱정을 하나? 좋은 그저 충성을 다할 따름인데.' 목회자의 인생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가, 그다지 한 번 더 오롯이 주님께 내어 맡기며 섬리 안에 순응하게 된다.

한해를 지나오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인가? 목사에게는 천상 한 가지 소원뿐이다.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꿈에 나타나 주님이 언제 물으셔도 한결같은 답은 '교회의 부흥'이다. 부흥지상주의를 말함이 아니다. 부흥이 무엇인가? 단순히 커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커진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가 건강한 것이다. 몸집만 비대하면 크고

반드시 부흥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목사님이나 사람의 사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은혜 없는 사람들 이야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불붙는 마음과 목회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함께 충만할 때가 아니던가? 성경은 두 가지가 결코 다르지 않음을, 바울과 그의 개척한 교회 성도들 간의 서신들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대부분에서 성도들을 향한 그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일치하고 있음을 증거한다. 교회 지도자가 제일 기쁘고 감사할 때가 언제인가? 성도의 정성스런 대접을 받아서 기쁘는가?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쁨이라면 그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삶에 다를 바 없다.

교회, 사랑의 간증
목사로서 성도들이 예배

을 넘어서는 최선의 예를 드림으로 헌신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고 한다. 이리 저리 낙심하고 있던 목회자도 그분의 헌신에 힘을 얻어 생명드림 용기를 얻고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며 일을 하게 되었다. 다른 중직자들도 그분의 헌신에 힘을 내 함께 최선의 헌신을 드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각자가 교회를 사랑하여 최선의 헌신을 드리는 중에 생각지 못할 결과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이다.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는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부르셔서 갔더니, 한 주간 특례를 하신 것을 통장 채 건축헌금으로 내어주신 것이다. 그로부터 교회는 예배당 빌딩을 매입하고, 지금도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쳐나는 성장하는 귀한 목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목사님은 어디를 가나 '정읍 집사님'에 대해 간증을 한다. 그분이 주의 교회를 향해 옥함을 깨뜨리는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다. 그 교회건물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친

는 말을 하기 어려워졌다. 교회와 성도, 목회자 모두에게 사랑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하나님과 목회자에게 사랑스러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성도의 모습과 목회자에게 사랑스러운 성도의 모습은 결코 다르지 않다. 교회가 개척된 지 16주년을 지나며 사랑스러운 성도의 모습은 그 기준이 한결같음을 본다. 개척예배 날 저녁에 찾아온 한분의 아름다운 헌신은 이후 교회가 어느 곳에도 선교헌금을 요청하지 않고 첫해부터 자립하며 성장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였다. 교회를 매입한다고 할 때에 1등으로 드리고 싶어서 오래전부터 준비했노라며 교회사랑을 드러내신 귀한 분의 이름을 사랑스레 기억한다. 차후 백지수표를 드린 성도님의 이름과 함께, 지나보면 모든 것이 감동과 기쁨이며 감사의 조건이 된다. 목회자는 뼈 속 깊이 그것을 사랑스럽게 기억하며 기도한다. 더 나아가, 혹여 사람목사는 잘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냉수 한 그릇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만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사랑받는 교회와 성도

- 교회, 헌신, 행복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질병에 노출되기 딱 좋을 뿐이다.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온갖 몸의 아픈 증상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면서, 생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몸이 아프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다.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뜻과 생각에 따라 마음껏 활동하고 일하는 교회이다.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인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일하려면 무엇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사랑스러운 교회와 성도

또한 건강함과 더불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사랑스럽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교회가 좋다 나쁘다고 말할 때, 건물을 보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 교회 출석하는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다. 달리 말해, 사랑스러운 교회는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은 건강함과 동시에 부흥하는 복된 교회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와 성도라고 할 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 목회자로부터도 사랑받는 성도들이 모였다는 뜻이다. 목회자로부터의 사랑받음과 하나님의 사랑받음이 다르지 않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다.

보고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인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는 성도들 볼 때, 자기 일도 코가 석자인데 주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성도, 자기 쓸 것도 부족한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 드리고 섬기는 성도들을 볼 때이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백날 큰소리를 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주의 몸 된 교회를 제일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성도들을 볼 때이다. 그런 이들은 목사에게 밥 한 끼 사지 않아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좋고 기쁘고 감사하며 축복을 구하게 된다. 목회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교회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그런 분들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는다. 언제나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사랑스러운 마음이 든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의 핏 값으로 산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얼마나 그 교회와 성도가 사랑스러우시겠는가?

서울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선배목사님 한분이 계신다. 개척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교회 월세를 2배로 올리는 바람에 쫓겨나 태권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예배처소를 마련키 위해 건물을 찾아야 되었는데, 어려운 형편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가난한 개척교회 장로님들도 아무 대책이 없고 보증서 사람도 한명 못 구할 형편이었다. 그때 정읍이 고향인 한분 집사님이 자신의 형편

히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다. 그 정읍집사님은 그 목사님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참 사랑스러운 '루디아' 같은 분이실 것이다. 목사님이 사랑하며 예배하시는데 정읍 집사님, 하나님께서도 그 정읍 집사님을 예배하시며 사랑하여 주실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참 사랑을 받는 복된 길이 되는 것이다.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또 다른 한분 목사님의 이야기이다. 학교선배 되시는 장로님 가정과 함께 개척을 했다. 열심히 개척목회를 해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잘 성장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일반신문과 기독교신문 두 개를 보고 계셨는데, 일반신문을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말도 없이 끊어버리신 것이다. 목사님이 며칠간 생각하다가 조금은 유머러스하게 물었다. '선배님, 저 목회 좀 재미있게 하게 해주세요.' 친밀한 후배처럼 애교가 섞인 말이었다. 그런데 학교 선배 되는 장로님 왈 '목사님, 목회를 재미있으려고 하십니까?'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목사님의 마음에 깊은 그늘이 되어버렸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서 온갖 큰일들도 힘과 용기를 다해 헤쳐 나갔는데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마음의 소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조용하고 점잖은 이별을 하고 말았다. 결국 교회의 형편은 예전처럼 그렇게 좋다

있지 않으시는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금년 한해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성도,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작금의 목회현장은 '사랑스러움'이란 말을 표현하기에는 그 기준을 극도로 낮추어야 할 것 같다. 말세의 현상 중에 첫 번으로 꼽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로 표현되는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생각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틀린 것이 된다. 오늘의 동지라 할지라도, 자기와 말이 맞지 않으면 순식간에 적으로 돌변한다. 극단적인 자기사랑은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방해하는 가로막이 된다.

사랑받음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천시되는 것과 달리,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짧고 유한한 인생의 날들 동안에 주님이 기억하며 주의 종들이 늘 기도해주고 싶은 교인들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한해의 마지막 12월을 지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 목회자 뿐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도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된다.

davidnje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청교도들이 미국에 102명이 온 것을 아는데 그 후에는 다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에 오지 않았는지요? 그리고 청교도의 정신을 알고 싶습니다.
-하버에서 이희은

A: 1620년 9월 20일 102명의 분리주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에 승선하여 미국이란 신대륙으로 출발합니다. 이 배 안에서 그들이 서명한 메이플라워 서약은 "하나님을 섬기는 국민이 정치적 권위의 근원임을 명시하는 것에 다 각자가 사인을 한 최초의 문서화 된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청사진이요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정신입니다. 게다가 문서에 서명한 남자들 중에는 하인들과 하류계급의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뽑는 공권력에 의한 사회를 예표한 것입니다. 11월 미국 동북부 프리머스 해안에 도착한 그들은 다음해부터 가장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Thanksgiving) 전통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청교도들의 미국 입국은 1회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1630년에도 같은 청교도이면서 영국 국 교회에 분리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개혁하겠다는 청교도들이 대거 미국에 이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700명 이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2만명이 됩니다. 그들은 매사추세츠 지방에 정착합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리더가 존 윈스롭(John Winthrop)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에 근거해서 영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부패해가면 하나님께서 종말론적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

1630년에도 왔으며 자유민주주의 사상, 자본주의 정신, 경건가정 중심

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그들은 교회와 정치가 하나 되는 모델 크리스천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다 성경으로 다스려지는 사회를 원했습니다.

이제 청교도 정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쫓겨나온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했다고 할 정도로 타협 없는 순결을 강조했습니다. 1) 각 개인의 중생의 체험을 중시하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공연하게 간증할 수 있어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 그들은 설교의 중요성, 성경중심의 신앙, 주일성수, 십일조, 건전한 크리스천 노동철학, 엄격한 교회치리체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건전한 가정이 건전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국가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3) 또한 교회뿐 아니라 병원이나 군대나 작은 가계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경건한 삶이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크리스천문화, 크리스천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이 실제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교도 운동을 통해 1)현대적인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나오게 되었고 2)자본주의정신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3)경건한 가정을 중시하는 풍조가 굳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미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636년에 세워진 미국의 첫 대학인 하버드대학은 미국 청교도 정신의 보루인 칼빈주의사상에 근거해 세워진 대학으로 목사를 만드는 신학교로 출발하였습니다. 첫 교수는 신학교수였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청교도의 정신은 오늘의 위대한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이 청교도의 신앙과 정신을 계속 살려가야 합니다.

당신도 "OK, Boomer" 로 불릴 수 있다!

(3면에서 계속)

젊은이들은 아마 이렇게 답할 것이다. 보통 어른들이 다짜고짜 끼어들어 오지랖 넓게 함부로 조언해대거나 그리타분한 말을 할 때 "듣기 싫어서 탄정을 피우곤 한다. 그런 것과 같은 거라고요. 상대방이 그만했으면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오케이부머"가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표현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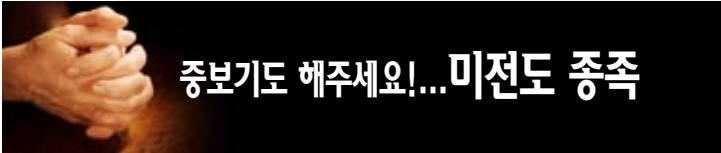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 전체를 한 번에 기독교 세력으로 묘사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로렌스 기자는 10대 청소년들과 이야기해본 결과, '오케이부머'에서 Boomer는 특정세대라기보다는 어린이들이나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저 본인들이 익숙한 기존의 질서에 맞추려고 강요하는 기성세대와 그런 '곤대스러운' 태도를 향한 일침이라고 설명한다. 10대들이 오케이부머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하는 대상이 부모님인데, 지금 십대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굳이 나누자면 대부분 X세대다.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이에 태어났다고 부머가 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 곤대의 다른 말이 부머인 것이다.

이 단어를 만들어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CNN이 나눈 기준에 따르면 1981-1996년생)가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난 Z세대(1997년 이후 출생)라는 점도 인상적이다. 밀레니얼 세대에 비하면 더 풍족하게 살아온 세대이므로, 기성세대의 철 지난 조언에 어떻게 보면 이미 좀 물들어 있고, 그래서 거부감이 덜 들 수 있는 것이다.

곤대를 좋아하는 젊은이는 아마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해도 오케이부머 현상이 너무 한 사회를 이루는 다른 구성원을 무시(dismissive)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로렌스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아마 젊은 세대는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기성세대야말로 젊은 세대의 바람과 간절한 외침을 철저히 묵살해온 거 아니냐고 말이죠. 기후 변화나 등락금 문제 등 자라나는 세대에 가장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은 거리로 나서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앞장서서 '어린 것들이 뭘 야냐'며 귀를 닫고 무시한 것이 바로 베이비붐세대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의 '곤대적 관점'이라는 거죠."

절박한 문제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 기성세대와 철옹성 같은 기독교를 향해 젊은 세대가 "우리 손으로 직접 변화를 만들어내자"는 다짐과 함께 만들어낸 신조어이자 하나의 현상이 오케이부머일 수 있다고 로렌스 기자는 지적한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ㅼ오 미엔(BIAO MIEN)

ㅼ오 미엔족은 중국의 공식적인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인 야오(Yao)족의 지류이다. 야오족은 중국 남동부와 남중국에 있는 몇 개의 성에 살고 있고, ㅼ오미엔족은 광둥성의 RUYUAN지역에 살고 있다. 이우미엔(IU MIEN)이라고 하는 그들의 언어는 야



오족의 방언으로 베트남의 흐몽족과 매우 흡사하다. 야오족은 JIANGSU성에서 기원해 점차 남중국으로 이동, 일부는 HUNAN성에 정착했으며 일부는 많은 시간을 거쳐 베트남과 라오스로 이동했다. 야오족은 한족의 지배하에 살아오며 역사적으로 한족의 많은 억압을 받아왔으며 중국정부만 중국 공산당 혁명 때는 능동적인 역할을 했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ㅼ오미엔족은 시골 농부로서 높은 산의 계단식 농경지에서 벼를 재배한다. 다른 수확물로는 고구마, 후추, 호박, 옥수수 및 콩 등도 재배한다. ㅼ오미엔족은 전통적으로 화전농경법을 취해왔는데 이는 수확이후 잡초들의 성장을 대위버림으로써 깨끗한 농경지에서 수확하는 것이고 사냥 또한 이들에게 역시 중요하다.

ㅼ오미엔족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저린 새로, 새를 소금과 밀가루에 버무려 공기가 안 통하는 항아리에 봉해두는데 소고기 양고기도 절여서 먹는다. 집은 나무나 대나무로 짓고 3개의 방을 만드는데 가

운데 거실이 있고 양쪽에 침실을 형태를 취한다. 어떤 때는 2층짜리 집을 짓는데 위층이 생활공간이고 아래층이 마구간이다.

가족을 중시하며 이혼은 거의 없다. 대부분 일부일체제인데 가끔 예외도 있다. 결혼은 부모에 의해 성사가 되지만 선택은 보통 당사자에게 맡겨지고 신부가 보통 16-17세라면 신랑은 서너살 위다.

야오족들에게 있어서 의복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지만 몇 개의 공통된 형태가 일반적이다. 여성의복은 보통 여러 색의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한다. 느슨한 바지위에 코트가 일반적이지만 많은 여성들은 검정색이나 푸른색 면직물 위에 정교한 무늬를 뜨개질로 장식하

느라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남자의 옷은 특별한 것 없이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옷을 주로 입는다.

신앙

전통적으로 ㅼ오미엔족은 조상신과 푸닥거리의 혼합된 종교를 갖는다. "조상숭배"는 죽은 조상에게 기도해 도움을 청하는 것인데 조상숭배를 위한 작은 제단이 이들의 집마다 있고, 푸닥거리는 병을 가져온다고 믿는 악령을 쫓아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종교적인 신념은 중국의 도교와 유사하다. 8개의 주요 신이 있고, 그 위에 크고 작은 신들, 초월적인 존재, 죽은 영웅들, 자연신들이 이것들이다. 좋

은 신들은 조상신이나 자신들의 집에 있는 신들로 생각하고 악령들은 숲, 계곡, 도시의 악령들이라고 여긴다. 1949년 공산당 출현 이후 종교는 ㅼ오미엔족은 생활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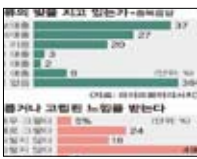
농업이 이들의 주요 경제활동이기 하지만 가끔 충분히 먹을 수 없을 때도 있다. 하지만 물리적인 굶주림이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이 더 심각하다. 이들의 대부분은 복음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책자나 기독교라디오방송도 이들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 목회자들도 불안한 은퇴...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미국 목회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삶과 사역에 만족했지만, 은퇴 준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리서치가 지난 6~7월 은퇴 목사와 은퇴를 앞둔 목사 2451 명에게 삶, 관계, 공동체에 대한 성찰 등을 설문한 결과다.



응답자 10명 중 9명(92%)은 목회자로서의 삶(관계, 영성, 재정, 건강 포함)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고 그중 2명은 '매우 만족한다'고 했다. 그들이 사역해 온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감정을 묻는 문항(중복 응답)에도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10명 중 8명(79%)은 '감사'라고 응답했고 절반 이상이 '사랑'(59%) '자랑스러움'(53%) 등으로 표현했다. 실망, 단절(16%) 배신(8%) 씁쓸함(2%)을 느낀 응답자는 소수에 그쳤다.

반면 은퇴 준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47%)은 은퇴 후 가족의 재정 안정을 고민하고 있었다. 10명 중 5명 이상(55%)은 현재 가구의 연간 소득이 6만 달러 미만이라고 답했다. 2만 달러 미만인 응답자도 5%에 달했다. 지난달 미연방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미국인 평균 연소득은 7만8635달러였다. 연간 소득을 6만~8만 달러라고 응답한 목회자(18%)를 고려하면 은퇴 목회자 10명 중 6~7명은 미국인 평균치에 미달하는 셈이다.

재정 불안의 주된 이유는 빚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6명(61%)이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대출, 신용카드 이용, 교육자금 대출 등으로 빚을 지고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맞닥뜨린 채무변제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자의 42%가 20년 이상 대출상환을 남겨두고 있었고 10~19년이라는 응답도 29%에 달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이 67세임을 감안하면 은퇴 후 상당기간 재정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응답자의 7명 중 1명(15%)은 최소 3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고 10만 달러 이상 대출 받은 목회자도 4%나 됐다.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은퇴자금 관리(22%) 일자리(17%) 세금관리(12%) 등을 꼽았다. 은퇴 준비과정에서 겪는 대인관계에 대한 응답도 눈길을 끌었다. 응답자 10명 중 3명(29%)은 외롭거나 고립된 느낌을 자주 느낀다고 답했다. 10명 중 1명(10%)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 대화하는 친구나 가족이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스콧 매코넬 라이프웨이리서치 대표는 "은퇴는 그동안 유지해 왔던 관계를 단절시키곤 한다"며 "새로운 만남과 관계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욱 선교사, 터키 사역 중 피살

터키에서 시리아 난민과 쿠르드족을 위해 사역하던 김진욱(41·사진) 선교사가 지난달 19일

피살됐다. 현지 선교사들과 관련 교회·단체들은 김 선교사의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요청했다.



터키 현지 언론인 '타임투르크 하베트'에 따르면 김 선교사는 이날 오후 11시쯤 디야르바키르시 바야랄구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공격한 16세 소년의 흉기에 찔렸다. 긴급 출동한 구급팀의 응급조치를 받고 셀라하틴 예유비 국립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기타리스트로 활동했던 김 선교사는 선교단체 반주자로 일하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후 A선교단체 소속으로 2016년부터 터키에서 선교사역을 펼쳤다. 8개월 전 아내 및 네 살 아들과 함께 바야랄구로 사역지를 옮겼다.

터키에서 15년째 사역 중인 B선교사는 "김 선교사는 시리아 난민의 고통을 전해 듣고 기도하다가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로 터키에 들어왔다"면서 "난민을 섬기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고인의 휴대전화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터키에서 30년 넘게 사역한 C선교사는 "김 선교사가 가슴과 등에 상처를 입었는데, 단순 강도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동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째 아이 출산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김 선교사가 참혹한 사건을 당했다. 현지 사역자와 교민도 매우 침통해하고 있다"면서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선교사의 장례식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150여명의 형제 자매들과 한인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디야르바키르교회에서 열렸다. 22일에는 발인예배를 드렸다.

미대선 경선주자들 성구인용 선거전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과 맞붙을 민주당 경선 주자들 상당수가 성경 구절을 적극 인용하면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고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가 보도했다. 3일 CT에 따르면 상위 경선 주자 12명 중 8명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면서 경제 개혁, 사회보장 정책, 성소수자와 관련된 이슈를 의지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지난 10월 10일 CNN 타운홀 방송에 출연해 마태복음 25장 32-33절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를 구분한 비유를 인용하면서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양은 천국에 가고 염소인 그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런 상원의원은 자신이 감리교 신자이면서 교회학교 교사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첫 경선 토론이 개최된 지난 7월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성공회 신자인 그는 한 종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교회와 신자들의 연결을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코리 부커 뉴저지주 상원의원은 미가서 6장 8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仁慈)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를 인용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동성애자 권리 보호에 대한 답변에 사용해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부커 상원의원은 미국침례교회(National Baptist Church) 신자다. 유대교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그의 의원실 책상엔 히브리어 성경도 놓여 있다.

대만계 미국인 사업가로 '슈퍼 루키'로 떠오른 앤드루 양은 미국개혁교회에 출석한다. 그는 월 1000달러의 기본 소득 공약을 발표하면서 요한일서 3장 17절을 인용했다. 해당 말씀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 아 열 배: 오후 8:00
영 아 열 배: 오후 8:00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형찬양: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 아 열 배: 오전 10:45
영 아 열 배: 오후 8:00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계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느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전 10:5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토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el: (804)560-7500, www.ijkc.org
10201 Robic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7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87. 임종순(1875-1947)

임종순은 1875년 황해도 곡산에서 출생했다.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던 1911년에 모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평양장로회신학교에 입학했다. 제9회로 본 신학교를 졸업한 1916년에 그가 묘향산 단군굴에 들어가 40일간 기도하였다 한다. 그 해 6월에 목사안수를 받은 그는 자기 고향인 곡산을 지방 순회목사로 3년간 파송되었다.

일본 도쿄

임종순은 1919년 장로교회 파송으로 일본 도쿄 지역 유학생 전도목사로 임명을 받아 동경연합교회에서 시무했다. 본 교회는 1908년에 조만식 등 유학생 십여 명이 조직한 동경교회가 나중에 장로교와 감리교의 동경연합교회로 거듭난 교회였다. 그가 파송되기 달 전이 그해 2월 8일에 있었던 독립운동으로 9명의 기독교 신자가 탄압받고 수감 되는 등 도쿄 조선기독교청년회와 더불어 동경연합교회는 큰 타격을 입었다. 그가 도쿄서 한 중학생에게 전도하여 세례를 주었고 그 학생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은행가인 부친을 강권하여 신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과 영국에 유학하였는데 그가 윤인구 목사였다고 한다. 파송된 이듬해인 1920년에 그는 예배당과 여자 기숙사 건축을 한국장로교 총회에 청원하는 등 활발하게 선교했다. 2019년 현재 본 교회는 동경교회로 변신하고 있다. 그의 도쿄 선교기간은 감리교의 오기선 목사가 부임하던 1921년까지 2년으로 보인다.

뉴욕한인교회

임종순은 만국장로교연합총회 한국대표로 파송을 받고 1921년 7월 31일에 미국 상항에 도착했다. 상항한인교회와 오클랜드한인교회는 그의 환영회를 개최했고, 8월 7일 주일아침 예배에서 부흥집회도 했다. 그해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펜실베

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개최한 본 총회에 그는 정인교와 함께 참석했다.

그달 23일에 10여분 발언시간을 받아 대구의 허벌트 브레어(방해범) 선교사의 통역을 통해 임종순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것같이 조선은 단군이 평양성 밖에 제단을 쌓고 약속된 하나님 왕국의 기초를



임종순 목사

1919년 일본선교부터 시작, 1921년 상항 경유 뉴욕으로 뉴욕한인교회 봉헌후 2년사역, 27년 귀국 서문외교회 청빙

쌓았고, 희망어가 복음을 전할 언어로 선택을 받았다면 세종대왕이 발명한 한글은 복음의 도구가 되었으며, 영국교회는 권세를, 미국교회는 금력을 자랑하나, 조선교회는 신령을 내세운다고 말하여 예배당이 들썩이고, 1912년과 1919년 사건으로 오늘날까지 당하는 고난을 말할 때 슬피 우는 사람도 있어서 그날은 한국의 천지가 되었다고 한다.

임종순은 귀국하지 않고 뉴욕으로 갔다. 뉴욕에는 유학생과 한인교포 등 100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였지만 한인교회가 없었고, 미국교회에 출석한 몇몇 한인을 제외한 한인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유학생과 한인교포를 찾아다니며 복음의 메신저가 되었다.

1921년 12월에 뉴욕한인교회의 대표로 임종순 목사가 열국 대표회의 주석인 미국 국무성의 휴스 씨에게 아래와 같은 전보를 보내 일본처하의 한국이 종교의 자유를 얻도록 도와줄 것을 청원했다.

"각자가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정하신 대로 열국 대표회에 주석하시게

됨을 우리가 깊이 믿는 고로 각자가 성신의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심을 받기를 항상 기도하나이다. 우리가 연하여 빌기는 원동의 평화와 정의의 도리를 태평양 대회에서 참도함과 또한 각하의 지위로 한국을 도와서 일본의 관할을 면케 함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에 예수교리가 자유로 전파되게 하심을 원하나이다."

이듬해 3월 1일 뉴욕 타운홀에서 서재필이 의장이 되어 삼일절 기념식이 있었다. 뉴욕한인교회의 교인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일동이 애국가를 부른 후 임종순이 기도했다. 그 후 순서는 최윤호의 식사, 일동의 국기 경례식, 조병옥의 독립선언서 낭독, 천한아와 김도준의 국기가 이중창, 이공중의 헌법 낭독, 임 초의 축사, 손리도의 독창, 정인교와의 연설, 서재필의 연설에 이어 만세로 폐회하고 다과회를 가졌다.

뉴욕 한인들이 뉴욕 타운홀에서 1922년 삼일절 기념식을 가진 직후 콤포드어 호텔에서 평가회를 가졌을 때 엔지 그레이엄 킴벌랜드 여사가 뉴욕한인교회의 창립을 제안하면서 조병옥 등과 논의했고, 동석한 랄프 W. 삭스만 목사가 섬기는 뉴욕 매디슨 애비뉴와 60가에 있던 매디슨 애비뉴 감리교 예배당에서 임종순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미 예배를 시작했고 한인교회가 시작되었지만, 미국 감리교의 지도하에서 임종순이 미국 감리교로부터 선교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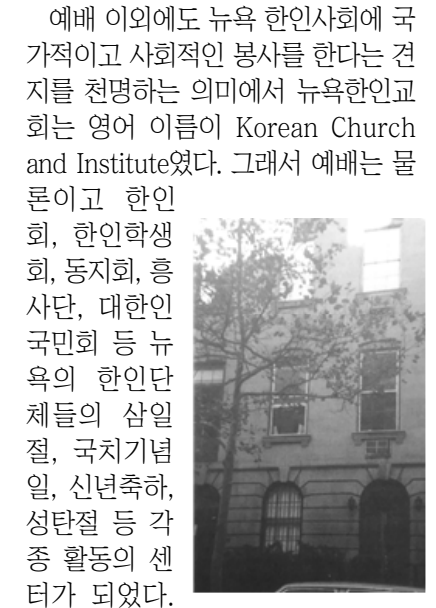
임종순이 이 예식에 참석하여 순서를 맡았을 것이다.

예배드린 지 1년 후인 1923년에 안정수, 이봉수, 이진일, 이원준, 정인수 등 교민을 중심으로 5인 예배당 건축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미국장로교와 북미유학생 총회의 뉴욕지역 학생들과 미국감리교에 문을 두드렸다. 인천에서 사역했던 존스 선교사의 부인의 협력을 얻어 뉴욕지방선교회에 교섭하여 마침내 미국감리교 재단의 라빈슨 박사의 동정으로 5000달러의 지원과 은행융자 10000달러 그리고 안정수의 2000달러 현금 등 총 17000달러로 뉴욕 웨스트 21가 459번지의 예배당을 구입했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의 벽돌 건물로 대지면적은 17.5x100 피트로 49평이었고, 25명이 기숙할 수 있어 유학생의 거주지로 활용되었다.

1923년 4월 15일(또는 22일) 한국과 일본의 감리교회를 관장했던 허벌트 웰치 감독의 인도로 예배당 봉헌식이 있었다. 당시 교인은 학생과 교민 등 60여 명이였다. 이에 신한민보는 "뉴욕시에는 연내로 한인의 교회집이 없더니 최근에

와서 새로이 거대한 재정으로 교회 집을 마련하고 당시 동포들이 협력하여 그 교회 발전을 힘쓰는바 장차 흥왕할 희망이 많으며 청년학생들이 많이 양성하리라는데 그 교회의 목사는 한국 안에서 종교사업에 가장 경력이 많고 신덕이 풍부한 임종순

정체성을 교육했다.



뉴욕한인교회

강렬한 조국의 독립을 목격한 애국심이 따른바 한국인이라면 누구든 자연스런 결과이기도 했다.

어느 날 안정수가 다이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던 중 열린 주방문을 통해 임종순 목사가 접시를 닦고 있어 반신반의하여 주인을 불러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기를 청했다. 그런데 잠시 후 주인이 주방에서 나오며 하는 말이 당신이 찾는 사람이 웬 일인지 몰라도 잠시 일자리를 그만두고 말도 없어 떠났다는 것이다. 그 후 임 목사는 종적이 묘연했는데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안정수에게 편지를 보냈다. 자기가 목사로서 천한 일을 하는 것을 교인에게 보였으니 자기가 더 이상 뉴욕에 머물러 있으면 교인들이 민망하게 되고 부담을 느낄 것 같아 뉴욕을 떠났다는 것이다. 이때가 1923년이었으니 그의 뉴욕선교는 2년으로 보인다.

귀국

목사가 일을 보게 되므로 장래 행복이 무궁무진하다 하였더라"고 게재했다.



매디슨 애비뉴 감리교회

예배당 봉헌식이 있기 3개월 전인 1923년 1월 19일에 임종순은 뉴욕공립병원장 케머서로부터 부고를 받았다. 내용인즉 한원복이 1922년 5월 5일에 뉴욕 벨리뷰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다가 그달 10일에 스테이트 아일랜드에 있던 폐결핵 병원인 시부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그달 30일에 폐결핵으로 본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부고를 받은 지 10일 뒤인 1월 30일에 병원으로 부터 받은 또 다른 소식은 이러했다. 그의 친구에게 부고를 전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그해 6월 5일에 롱아일랜드에 있는 의과대학으로 시신을 보냈고 그해 12월 4일에 화장을 하였다고 한다. 외로운 나그네는 이렇게 생을 마감하였다.

뉴욕한인교회는 예배 외에도 세 가지 사역을 하였다. 성경공부는 물론이고 교포를 위해 영어강좌를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학교도 있어 교포자녀를 위하여 한국인으로서의

뉴욕을 떠난 임종순은 한국갈 여비와 일파의 돈을 저축하려고 디트로이트의 포드 자동차 공장에 취직했다. '내게는 두 손이 있다'고 외친 그가 노동하였다. 그는 1927년 9월경에 한국으로 귀국했다. 전도목사로 활동하다가 평북 정주 오산교회를 거쳐 55세가 되던 1929년에 그는 평양 서문외교회로 청빙을 받았다. 당시 2백평 예배당을 증축하고 송실과 송의와 장로교신학교의 학생들이 모여들어 3000명이 출석했다고 한다. 부흥사로 길선주 다음 김익두 다음 임종순이라고 한 말이 사실이었고, 덧붙여 독보적인 신앙과 인품으로 그는 성자라는 칭호도 받았다. 1935년 환갑이 되던 해 교회분열로 그는 수십 명이 모이는 대타령교회로 옮겨갔다. 중풍에 사모를 사별하고 홀아비로 지내다가 젊은 부인을 맞는 등 민망스러운 처지가 계속되던 중 그는 1947년에 향년 72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명절)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8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차정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명절)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전 5:30 토요새벽찬양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 영어권(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949)854-4010 / bethe@dkcc.org / www.dkc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일예배 장소) Office: 206 S Hobart St. Los Angeles, CA 90004 (주요일외강사)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이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사역: 오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l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La Bre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dkcc.org / www.dkc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4)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6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헬라어권 엘피스(ELPIS)의 뜻은 소망(Hope)입니다.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학교: 오전 9:00(명절)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명절)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생애대학회: 오후 7:20(명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명절)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명절)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vc.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M예배: 오전 9:45(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예배: 10시 50분 인 17강 8강 "이름만 모세가 중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족 레위 족을 위하여 난 아론의 지팡이에 흙이 풀고 손이 녹아 꽃이 피어서 나무 열매가 열렸다." Tel: (213) 924-3340, pmissio100@gmail.com 3944 Wilshire Blvd, L.A. CA 9001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9)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제 3편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3)

2. 목적

책의 제목이 보여주고 있듯이 그 목적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음으로써 완전한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데 있다. 이 책은 탐구적이며 영적이며 그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지난 5백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이 작은 책이 끼쳐 온 방대한 영향력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 지혜의 깊이와 생각의 명료함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어 뛰어난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의하여 생각이 맑아지고 인

로 가져온 빛을 가장 완벽하게 반사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기독교를 전개하고 있다"라고 한다. 이 작품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경건의 추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신앙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3. 구성과 형식

1) 영적생활

이 책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1부는 영적생활에 대하여 25장을 다루면서 영적인 삶에 유익한 권면들이라는 주제로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영적인 삶은 무엇보다

순간적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에 버금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신앙인을 평화로 이끈다는 것이다.

3) 내적 위로

3부는 내적 위로에 대하여 59장의 가장 많은 분량으로서,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권면한다. 이 내적인 위로를 다루는데, 대언(對言)의 방식으로 바뀐다.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인 신앙인과의 대화체로 글이 전개된다. 주님과 종의 관계, 주님과 아들의 관계로 신앙의 규범들이 상세히 서술된다. 첫 번째 책에서 의지가 강조된다면, 여기서는 은혜가 주 역할을 담당한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도 없기에, 자신을 비우면 비울수록 그는 은총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다.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얻어질 수 있으며, 경건한 사람은 언제나 이를 위하여 위대한 인물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4) 성만찬

(K. Hirsche)에 의해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네 권이 모두 들어 있는 필사본은 없으며, 네 권이 항상 같은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4권의 작은 책을 한 권으로 묶어 놓은 것인데 1-3권에서 제목을 따로 붙여 설명하고 있으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의미의 신앙권면이 되풀이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논증적인 것이 아니라 진술적이며 그리스도의 체험에서 음조가 최고로 높아진다. 그것은 수도원과 은둔지에서 읽는 것을 전제로 쓰였기 때문이다. 이 작품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즉각적인 교제의 가능성을 최고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4. 핵심가치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책의 초두부터 나오는 문장은 "주께서 나를

하나님과의 영적교제와 경건추구에 도움주기 위한 신앙입문서 가장 핵심적 가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많은 영향력 끼쳐

생이 아름다워졌다고 고백한다. 한 수도자가 쓴 작은 책 한 권이 그토록 많은 독자들의 인생을 뒤바꾸고 또한 끊임없이 지혜와 용기를 넣어 주고 있다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토마스 아 캠퍼스가 그의 책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깊은 겸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인간성에 대한 통찰력과 너그러운 이해심으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고 그것을 성취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슬기롭고 신뢰할 만한 조언자가 되고 있다.

토마스는 이 책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최고의 목적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 거룩한 십자가의 왕도를 따라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토마스를 연구한 크루이스 박사는 "의심할 여지없이 토마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으

로 세상과 헛된 지식을 경시함으로써, 자극과 마음의 통화를 이루어 마음의 평화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관건은 겸손에 달려 있다. 이 겸손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용히 따르는 데서 오는 겸손이다. 아울러 이것은 자신을 가만히 성찰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과 세상의 허영을 벗어나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서 오는 것이다. 마음의 단순함이 교만한 지식보다 낫다는 것이다.

2) 내면생활

2부 내면생활에 대한 12장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적인 믿음생활을 위한 권고들을 다루는 토마스는 세상의 외부적인 관심보다는 내적인 변화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 변화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와 우정을 맺고 그의 왕도(王道)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성취된다. 인간의

4부는 성만찬에 대하여 18장을 다루며 성찬에 관한 경건한 권면을 하면서 성찬에 담긴 영적 의미와 교훈을 담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과 신비적인 합일을 이루는 거룩한 성례인 성만찬을 다룬다. 논술체로서 3권과 마찬가지로 주님과 제자간의 대화를 통하여 성만찬과 신앙인의 대응 관계를 논한다. 성만찬을 올바르게 받기 위하여 인간의 죄 된 성품에 대한 자기고백이 있어야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신앙인은 경건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5) 구성의 형식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은 그 제1권의 표제 'Di imitatione Christi et contempt omnium vantitatummundi'에서 나온 것이다. 이 네 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보격(補格)과 각운(脚韻)에 따라 쓰였다는 사실이 1874년 히르체

파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새롭게 변하여 온갖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 자신의 삶과 삶의 방식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로 시작된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내면의 영적상태를 성찰하고 훈련하며, 외면의 말과 행동에서 말씀을 단순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경건한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5. 광범위한 영향력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짧은 시간 안에 수도원 세계를 초월하여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많은 나라에서 자국어 번역되기 시작했다.

(12면으로 계속)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시립대학교 교수)

크리스찬 웰빙

언제부터인가 웰빙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웰빙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가 짧아서 30년 정도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걱정할 정도로 어렵던 시절을 지나 잘 살게 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이다. 번역할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인지 영어 단어 wellbeing을 그대로 한글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다. 웰빙의 사전적 정의는 "복지나 행복의 정도를 의미하지만 특정한 생활방식을 가리키는 유행어로 사용되며 건강에 좋다고 주장되는 제품에 붙는 수식어로도 사용된다"고 되어 있다. 몸에 좋다는 유행어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기구 등을 알리는 광고에도 웰빙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된다. Wellness라는 단어가 신체적 건강을 표현한다면 웰빙(wellbeing)은 우리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건강을 포함한다. 웰빙은 행복, 삶의 의미, 기쁨을 포함하는 것으로 삶의 최상의 상태를 가능하게 한다. 며칠 전에 학교 부속기관에서 제공한 목회자의 웰빙에 대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10년 동안 목회자들의 웰빙을 연구한 분이 본인의 연구를 나누었다. 강의를 들으며 내 삶의 웰빙, 우리들의 웰빙을 생각해 보았다.

웰빙은 매일의 행복, 진정성, 탄성(resilience), 번영(thriving)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네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한 사람의 웰빙을 결정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초되는 요소는 매일의 행복이다. 매일의 행복이 쌓여서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감정, 기분, 정서는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다. 기쁨, 즐거움, 평안, 유쾌함 등 긍정적인 감정을 분노, 지루함, 슬픔, 좌절 등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많이 느낄 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을 느끼는 것은 주관적이므로 매일의 행복은 행복한 경험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똑같은 경험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은 늘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며 만족하지 않고 불평을 한다. 매일의 행복은 우리의 면역체계에도 연관되어 있어서 행복을 느낄 때 질병으로부터 더 자유하며 상처회복이 빠르고 장수한다고 한다. 매일의 행복이 중요한 이유는 하루하루의 행복이 쌓일 때 우리의 삶에 미치는 도전이나 스트레스를 극복할 능력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매일의 행복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미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마음을 지닌다면 그 행복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명랑한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을 좋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스마트 폰이나 인터넷의 발달로 손 안에서 세계의 모든 뉴스가 바로 바로 전달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친구들 모두에게 즉시 알려지는 세상인 시대 사람들은 점점 더 독립된 삶을 살아간다. "외로움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현대인에게 가장 큰 고통이 의미 있는 공동체의 결여임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있는 관계 형성은 웰빙의 중요한 차원이다. 탈북신학교의 가을매거진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어느 건강단체가 2018년에 미국사람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 미국사람의 반 정도만 규칙적으로 사람들과 의미 있는 교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항상" 혹은 "가끔" 외롭거나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낀다고 답했다. 외로움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외로움의 증상이 심화되면 하루에 담배 15개피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 연구도 있다.

매일의 행복이 사람의 웰빙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생각할 때 크리스천들의 정신건강이나 정서적 웰빙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는 당연한 것 같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구속 받은 죄인들이 모인 탓에 때로는 시끄럽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찾기 어려운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는 다락방으로, 목장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웰빙을 누리는 기초가 되니 그 또한 감사할 뿐이다.

lyp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h4>뉴욕망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 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 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 883-1977, Fax. (516) 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4>뉴욕새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 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 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아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 461-2810(Fax: 경음), (917)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30(월-토)</p> <p>www.ccpcny.org, Tel. (516) 387-8940, 8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평일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 961-2171, Fax. (718) 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45분 주일학교 오후 1:45분 찬양예배 오후 3:15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토요일 오후 8시 30분</p> <p>Tel. (347) 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주비전교회</h4> <p>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아예배: 오후 1:00</p> <p>Tel. (718) 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me Rd., Manhasset, NY 11030</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 886-4040, www.kapc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목회서신

관심과 배려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말세기적 사탄의 교회파괴 작전은 가정교회에서 비롯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극심한 경제위기, 혼외정사(외도), 자녀와 노인문제 등으로 갈등과 분쟁하다가 마침내 별거와 이혼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같은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배우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있다고 봅니다.

1. 관심(關心, Concern, Interest)

'관심'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에 두고 잊지 아니함'이라고 정의합니다. 관심의 반대는 무관심이며 사람의 반대도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며 사랑이 없기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잔소리나 바가지는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고 부부싸움은 관심과 사랑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

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3개의 양파를 키우는 실험을 했습니다. 교실 앞 쪽에 컵에 담은 3개의 양파를 두고, 아이들이 한 양파에게는 매일 사랑 한다는 말과 칭찬을 해주었고, 다른 양파는 매일 미워하는 말과 부정적인 언어를 보내었고, 또 다른 양파는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난 후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란 양파

는 잎이 틀어지고 보기 싫은 모습이 되었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무관심한 양파는 잎도 시들시들해지고 뿌리도 썩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양파를 되살리기 위해 미운 양파와 무관심한 양파에게 매일 사랑과 칭찬의 말을 해주기 시작했고, 1주일 후 죽어가던 양파가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실험입니다. 또 어떤 아픔과 장애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치유될 수 있다는 놀라운 법칙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배우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관심의 힘입니다.

2. 배려(配慮, Consideration, Care) '배려'는 '여러모로 자상하게 마음을 씬'이라고 정의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배려'는

'배우자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고통, 고생, 근심을 덜어주거나 없애주려는 관심' 또는 '배우자를 편하게 해주는 이기심 없는 관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배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부의 가정생활에서 엿볼 수 있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하루 종일 격무에 시달린 남편이 밤늦게 귀가하여 바로 침대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오 늘따라 집안일을 많이 한 부인도 피곤하여 남편의 옆자리에 바로 누웠습니다. 그런데 밤에 불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불을 꺼야 했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불 좀 꺼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당신이 끄지 그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피자에 눈치를 보면서 서로 불을 끄지 않습니다. 부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불 끄고 문단속한 것은 나인

데, 자기가 좀 꺼주면 안되나!....". 남편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요즘 좀 잘해줬더니 머리끝까지 올라오는구만!.."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두 사람은 밤새도록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불을 꺼야 합니까? 하루 종일 회사에서 격무에 시달린 남편이 꺼야 합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집안일로 인하여 피곤한 아내가 꺼야 합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서로 상대방이 꺼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나도 피곤하지만 상대방이 더 피곤할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불을 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지만 남을 위하여 불을 끌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OC교협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유익 주는 교협...기도의 공동체로"

OC교협 29회 총회, 새회장에 박상목 목사

오렌지카운티(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서 목사) 제 29회 정기총회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은혜채플에서 11월 21일 오전 11시에 열려 신임회장에 박상목 목사(가주주님의교회)를 선출했다.

박상목 회장은 "교협에서 사역해달라는 선배목사님들 권면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교협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감당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신임회장은 "교협이 이타

적이고 유익을 주는 교협이 되고, 기도 많이 하는 교협이 되도록 하겠다. 많이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기도해주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서 목사 사회로 시작된 회의는 개회선언, 회의록 서기 임명, 서기보고, 사역보고, 회계보고, 이사회 보고가 있었다.

회의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는 조현영 목사(큰빛교회) 인도로 이호우 목사(좋은소식교회)가 대표기도 했으며 윤우경 집사(OC전도회연합회 이사장)가 성경봉독을 했고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교회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우자'(행 1:12-2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와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협 회장)가 축사했으며 윤성원 목사(증경회장)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사우스베이목사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임회장 장경일 목사 선출

사우스베이목사회 정기총회 및 연말친교모임

사우스베이한인교회목사회(회장 이상훈 목사)에서는 정기총회 및 연말 친교모임을 지난

11월17일 오후 6시 코너스톤교회(담임이종용 목사)에서 가졌다. 코너스톤교회 찬양 팀들의

찬양인도와 이상훈 목사 사회로 열린 제1부 예배는 이종용 목사가 '성도를 온전케 삼거라'(계7:9-12)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제2부에서는 감사보고, 회계보고, 회장 선출 등의 순서로 진행했으며 장경일 목사(One Family Church)가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제3부는 안병권 목사의 사회로 진행하면서 회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친교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저녁식사는 코너스톤교회 여성교회에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으며, 신임회장 장경일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총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전현미 회장 연임

총회, 부회장 랜디김, 미디어분과 신설, 임원진 보강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 2019년도 총회가 12월 1일 오후 5시 식당 옹공에서 열려 전현미 회장이 연임

됐으며 랜디김 씨가 부회장에 선출됐다. 전현미 회장은 "세 번째 회장임을 맞게 됐다"며 "2020

년도 임원들이 모두 협력해서 협회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미 회장 사회로 열린 총회는 회원점명, 개회선언, 2019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회칙변경이 있었는데 회장 임기를 '1년 1회 연임가능'(13조)에서 '연임 가능'으로 개정했으며 교회음악협회 미디어 관련부문을 총괄하는 미디어분과가 신설되고 임원진을 보강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 전 열린 예배는 랜디김 총무 인도로 시작, 조성원 사모 기도, 이경호 목사가 '천변을 불러봐도'(시23:1-2)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학생음악축제에서 전출연자들이 합창하고 있다. 사진 우측아래는 이날 지휘자로 참석한 학생들이 보고 음악과장 윤임상 교수와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월드미션대학교 제26회 학생음악축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제 26회 학생음악축제가 '이태리 오페라의 황금기'라는 주제로 11월 24일 오후 7시 한

길교회(담임 박찬섭 목사)에서 열렸다. 임성진 총장은 "월드미션대학교 제 26회 학생연주회를 갖

게 된 것을 축하한다"라며 "연주되는 오페라의 종주국인 이태리의 아름다운 예술의 하모니를 감상하며 늦어가는 가을 저녁의 음악의 풍요로움 속으로 젖어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생음악축제는 양설아, 가오 시보, 데이빗 리, 김동림, 김지선, 정미영, 이도형 등 본교 지휘전공자들의 지휘에 맞춰 오케스트라 연주를 했으며 소프라노 이영주, 한승연, 한유진, 엘토앵유진, 테너 최원현, 우위영, 바리톤 엘리야스 베레진, 엔드류 다나 워커가 출연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했다. <박준호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1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탄원서 사인, 선교보고 등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1월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1월 월례회가 지난 22일 오전 10시30분 새소망승리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이종명 목사의 형량감을 위한 탄원서를 검사에게 제출하기로 하고 참석회원이 서명했다. 또 엘살바도르 황영진 선교사부부가 방문해 선교보고했다.

1부 예배는 박진하 목사 인도로 기도 이찬양 목사, 설교

육민호 목사, 함심기도 인도 전희수 목사, 축도 박성원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육민호 목사는 "영향력이 있는 사역"(롬11:3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라며, 프랑스 위그노들이 각 나라로 흩어지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발전하고 번성케 한 것을 소개하며 "우리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

력을 끼쳤는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육 목사는 "우리 사역은 사람을 키우는 사역인데 첫째,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님이 부르셨다. 둘째, 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이 이뤄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뿐"이라며 교회개혁 간증을 소개하고, "셋째,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 주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사역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장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2월 20일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정관계정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영진 선교사는 "5년 전 엘살바도르 선교를 시작할 때는 한인이 1가정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6가정으로 늘어 한인선교회의회를 구성해 협력 선교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단기선교팀과 신학교, 방과후학교 등 사역에 대해 보고했다.

▲홈페이지: breadngospel.org <유원정 기자>

부교역자청빙

순복음탕파교회는 항상 따뜻한 날씨와 모든 환경이 좋은 플로리다 탕파지역에 소재하며 주님의 지상최대의 명령인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과 섬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1. 정규신학교를 졸업, 또는 재학 중인 경험자 우대
2.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한 분
3. 미국거주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본인 및 가족 소개서(사진포함)
2. 학위 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3.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녹음파일이나 동영상 2회분
4. 추천서(목회자 1분, 이메일 또는 연락처 포함)

제출처

이메일: Rightpath <ohjikfait@aol.com>
우편: 6901 W. Comanche Ave., Tampa, FL 33634
전화: (813)843-5057

제출마감

2019년 12월 21일

사역내용

풀타임-주일학교 전담
유아, 유년, Youth 주일예배 및 성경공부
교사 및 학생 지도와 훈련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901 W. Comanche Ave., Tampa, FL 33634
http://m.tampafgc.org/

동부교계 게시판

브니엘선교회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식

브니엘선교회(회장/이사장 홍상설 목사)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식이 12월 8일(주일) 오후 5시 뉴저지 한길교회(담임 이병준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박효성 감독이 회장으로, 최재복 장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문의: (914)439-6877, (201)696-8044

뉴욕센트럴교회 헨델의 '메시아' 공연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가 주최하는 헨델의 '메시아' 공연이 12월 8일(주일) 오후 4시 열린다. 광병국 장로 지휘로 크리스마스 캐롤 싱어풍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뉴욕센트럴교회 찬양단은 14일(토) 오후 8시에는 Purchase College 퍼포밍아트센터에서 메시아 공연을 갖는다. 티켓은 25달러.

▲문의: (516)387-9940

퀸즈장로교회 성탄축하 찬양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주최하는 성탄축하 찬양제가 12월 15일(주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문의: (718)886-4040

크리스천예술박람회

크리스천예술박람회가 12월 7일(토)부터 2020년 1월 5일(주일)까지 뉴욕갯세마네교회(담임 이지음 목사)에서 열린다. "Spread the Art of God"이라는 주제로 정혜민, 운수현, 김택 등이 참여하며 리셉션은 12월 7일 저녁 5-7시에 열린다.

▲문의: (516)520-2004, (917)693-2763

문석호 목사 단독 입후보

12월 9일 뉴욕교협 부회장선거 위한 임시총회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 부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가 12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 뉴욕그레이트백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열린다.

후보로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가 단독 입후보했다.

선관위는 사전 등록을 마친 총대만이 당일 투표권이 주어지며, 기간은 12월 9일까지로 하고 이메일과 전화, 사무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총대자격은 최근 3년(44회기, 45회기, 46회기)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원회(위원장 한재홍 목사)는 11월 20일 오후 4시 입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후보로 문석호 목사(뉴욕효

신장로교회)와 김영환 목사(뉴욕효성장로교회)가 등록했으나 21일 오후 2시 교협사무실에 열린 선관위원회(위원장 한재홍 목사) 모임에서 김영환 목사가 서류미비로 탈락했다.

이날 선관위에서는 김영환 목사에게 여러 의견들이 대두됐으며, 김영환 목사가 CPA가 공증한 2년간 효성교회 재정결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후보 탈락을 공지했다.

이날 선관위원회에는 위원장 한재홍 목사를 비롯해 김영식 목사, 이병홍 목사, 신현택 목사, 이만호 목사, 유상열 목사, 현 회장 양민석 목사, 총무 이창종 목사, 서기 문정용 목사, 평신도 2인 김영호 장로, 이광모 장로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빌립보교회 오르간 헌정 감사예배 및 기념음악회를 마치고 참석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필라 영생장로교회 김용찬 장로부부 기증

뉴욕빌립보교회 오르간 헌정 감사예배 및 기념음악회

뉴욕빌립보교회(담임 박희열 목사) 오르간 헌정 감사예배 및 기념음악회가 12월 1일 오후 5시 열렸다. 이날 헌정한 오르간은 필라 영생장로교회 김용찬 장로와 류영진 권사가 기증했다. 이날 김 장로부부는 빌립보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부 예배는 박희열 목사 인도로 찬양 빌립보찬양팀, 기도 이경수 장로, 말씀 이용길 목사, 봉헌기도 한재홍 목사, 축도 신성능 목사(원로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헌금은 과테말라 공립학교 성경교육 지원사역(대표 한재홍 목사) 후원금으로 전달됐다.

2부 기념음악회에서는 기증된 오르간을 안제인(뉴욕남교

회 오르간리스트) 성도가 연주했으며, 빌립보교회 양혜원 집사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 듀엣으로 연주되기도 했다.

특별연주로 Dale Stuckenbruck 박사(LIU 교수)의 바이올린 연주와 김하나(뉴욕윈드오케스트라 음악감독) 클라리넷 연주 등도 있었다. 또 소프라노 조애실(하은교회 솔리스트)과 BTS 뉴욕동문목사중찬단의 찬양도 진행됐다.

기념음악회의 주역인 빌립보교회 찬양대는 이은애 권사의 지휘로 5곡을 찬양했으며, 마지막에는 온 회중들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을 찬양하며 마지막을 장식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회장 이준성 목사, 부회장 김진화 목사

뉴욕목사회 제 48회기 정기총회, 95명 참석

뉴욕목사회 제 48회기 신입 회장에 이준성 목사, 부회장에 김진화 목사가 선출됐다.

11월 25일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 정기총회 임원선거에서 일부 회원들은 회장후보이던 현 부회장인 이준성 목사에게 대한 소속교단에 대해 의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장 김원기 목사는 서류심사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해 후보로 내놓았다고 밝혔으며 회원들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준성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회장 이준성 목사는 당선 인사말을 "유구무언"이라는 한마디로 압축했으며, 선구임원교체 후에는 "빠른 시일 내 임시총회를 열고 제대로 된 목사회 일군을 선임하도록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석인원 95명 중 총 투표수 90표 가운데 찬성 65표, 반대 21표, 무효 4표로 나타났다.

부회장 선거는 총 투표수 86명 중 김진화 목사 43표, 이재덕 목사 40표, 무효 3표가 나왔다. 선관위는 과반수를 받았으며, 김진화 목사를 당선자로 발표했다. 그러나 86표의 과반수는 44표라는 의견에 따라 재투표 할 상황에 처했으나 이재덕 목사가 사퇴의사를 밝힘으로 그대로 김진화 목사가 부회장



뉴욕목사회 제 48회기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으로 확정됐다.

감사는 정재현, 한석진, 유승례 목사가 선출됐다.

감사패는 김재권 목사, 김정숙 목사, 박도보라 목사, 이창남 목사, 김여호수 목사, 유태웅 목사에게 전달했다.

목사회 47회기는 △신년기도회 △부활절연합찬양축제 △제13회 미동부 5개주 한인목사회 체육대회 △삼경관동세미나 △랑캐스터 뮤지컬 관람과 △임실행위, 임원회 등의 행정보고를 했다.

회계보고는 총수입 33,168.32달러, 총지출 29,246.36달러, 잔액 3,921.96달러로 보고했다.

이날 신입회원 김준현 목사(뉴욕교협청소년센터), 김정길

목사(엘피스찬양선교회), 이현숙 목사(뉴욕태넌교회)가 인사했다.

1부 예배는 김정길 목사의 찬양인도 후 이준성 목사 인도로 기도 양민석 목사, 성경봉독 김정숙 목사, 설교 문석호 목사, 축도 정순원 목사 순서로 진행



뉴욕목사합창단 제 6회 정기연주회에서 단원들이 찬양하고 있다.

감사와 찬양, 탄원과 기도...

뉴욕목사합창단 제 6회 정기연주회

뉴욕목사합창단 제 6회 정기 연주회가 12월 1일 오후 5시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뉴욕사모합창단과 뉴욕장로성가단이 찬조출연 했다.

단장 김종훈 목사(뉴욕에일장로교회 담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뉘 150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 다른 하나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과 기도"라며 "오늘 부르는 찬양 속에는 감사와 찬양, 탄원과 기도가 함께 들어있다"고 말하고 "연합해 찬양함으로 위로부터 부여주시는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연주회는 월드밀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해 김종

환 목사의 인사말, 교협회장 양민석 목사의 개회기도 후 뉴욕목사합창단이 "십자가 굳기", "주님을 따르며는", "민는 사람들은 군병같으니" 합창으로 시작했다.

이어 월드밀알첼로오케스트라, 뉴욕장로성가단, 뉴욕목사합창단, 뉴욕사모합창단의 합창이 이어졌으며 현금시간에는 오카리나(손소혜) 연주가 있은 후 김종훈 목사가 기도했다.

마지막은 출연진들이 연합합창(축복, 송축해 내영혼)한 후 방지가 곡사 축도, 이보형 목사(총무) 광고, 식사기도 박진하 목사(부단장) 순서로 모두 마쳤다.

연주회는 지휘 이다윗, 반주 정지은, 목사합창단원 총21명이 참가했다. (유원정 기자)



12월 1일 저녁 열린 베이스아이드장로교회 전도찬양집회에서 찬양팀들이 찬양하고 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베이스아이드장로교회 전도찬양집회 300여명 참석

베이스아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가 12월 1일 오후 5시 전도찬양집회를 개최했다. 눈 비가 섞여 내린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베이스아이드장로교회 성도들과 초대한 이웃들 모두 합쳐 300여명이 모였다.

이종식 목사는 "요즘은 집회를 통해서 전도되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다는 편견을 깨고 싶었다"며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전도대상자를 정하고 몇 달씩 기도하고, 직접 찾아가서 입으로 초청하고, 초청된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입을 열어 증거하는 전통적인 복음전도의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을 온 교회 성도가 체득하는 기회를 갖고자 했다"고 집회 개최 이유를 전했다.

가브리엘 스킵티의 연극을 오 프닝으로 신인목 장로의 기도, 찬양팀의 찬양과 연합찬양대의 코러스, 바드워십팀의 울동, 박수복 장로의 간증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고, 이종식 목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눅15:11-24)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초대된 불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며 신앙의 길로 초청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이 전도찬양집회는 내용과 준비 면에서 특징 있는 집회다. 내용면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목상하며 찬양하면서 회복과 치유가 되는 시간을 갖게 해주었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기쁨과 능력이 무엇인지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구원의 시간을 제공했다.

교회측은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통해 온 교회가 영혼구원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주일학교와 청소년들로 구성된 라그라시아 오케스트라, EM(영어회중)의 바드워십팀, 교회의 대표적 3개 찬양팀(두나미스, 주영광, 예사랑) 연합, 몇몇 자원자들로 구성된 전도 찬양팀, 그리고 연합 찬양대(시온, 할렐루야, 임마누엘, 살롬, 아멘)와 가브리엘 스킵티의 참여 등 찬양순서에 참여한 인원들도 다양했다고 밝혔다. (정리: 유원정 기자)



제33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찬양 축제 마지막 연주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소리 내라"

제 33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마지막 찬양축제

제33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찬양축제 마지막 연주회가 11월 20일 오후 8시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열렸다.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3회에 걸쳐 찬양축제를 갖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재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지휘 윤원상 교수, 피아노 나윤주 집사)은 예배용 뮤지컬 "Alleluia!"를 연주했다. 학생들은 반듯한 자세로 정성을 다해 "주께 찬양드리세", "놀라운 주의 이름", "베들레헬, 갈릴리, 겠세마네", "주님이 주신 노래", "영원히 나 주만 위해 살리리", "주님의 십자가 나는 믿네", "주께 찬양드리세(Finale)"를 차례로 노래했다.

연주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재열 목사 인도로 최화순 학우가 기도를, 김복순 학우가 성경 봉독, 학장 김성국 목사가 설교하고, 인도자가 봉헌기도, 학감 허윤준 목사가 광고, 이지용 목사가 축도를 담당했다. 김성국 목사는 "그의 영광의

찬송"(렘1:11-12)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지휘자가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소리를 내면, 내가 연주를 하면, 그 연주는 망치게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지휘자이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주님이 부르실 때 소리를 내야하고, 주님이 쉬라고 하시면 그 율법이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 기다려야 한다. 어느 순간에 주님이 부르실 때 '빠야!' 소리를 내야 한다. 아무 때나 소리를 내면 안된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전했다.

김재열 목사는 김성국 목사에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제 33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찬양 축제는 11월 6일에는 뉴욕새사람교회(담임 이종원 목사), 13일에는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각각 열렸다. (정리: 유원정 기자)

남가주교협 제50차 정기총회 무산

회원자격 시비로 개최 못하고 연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한기형 목사) 제 50차 정기총회가 출석회원들의 자격문제 제로 개최선언도 하지 못하고 연기됐다.

지난 11월 25일,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에서 진행된 정기총회는 개최를 위한 회원 정점에서부터 잡음이 생겼다.

직전회장이자 공천위원회 서기 김재을 목사는 출석 회원들이 한 기관 또는 교회에서 다수 참석했음을 지적하며, 정관의 회원자격대로 중복을 피하고 교회와 기관대표 1인으로 출석회원을 제한하자고 건의했다. 이어 관례를 들어 오늘까지 20달러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을 회원으로 인정하고 총회를 진



개회를 하지 못하고 연기가 된 남가주교협 총회모습

행하지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의결권과 표결권을 갖고 있는 출석회원들의 자격시비가 대두됐다.

그러나 정관대로 하자는 의견에, 회비납부 여부가 파악되지 못하고 참석 목사회원들의

불협화음으로 참관하던 평신도들이 실망스러운 발언들을 쏟아내는 등 회의진행이 이뤄지지 못하자, 의장 한기형 목사는 "정관대로 인준기관을 통해 다시 (회원자격을) 공고하고 총회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하고 회의를 중단했다.

총회가 무산된 후 남가주교협 공천위원회는 "현 회장단이 공천위원회의 공천을 무산시키고, 차기 회장단 선출을 주도하기 위해 C교회에서 성도들을 대거 동원했다"고 강하게 항의

하며 "남가주 어느 기관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남가주교협은 법과 절차에 따라 총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한 모 회원은 "직전회장이 공천위원회 회의 때부터 자신의 입맛에 맞게 회의가 진행되게 했다"며 "마치 벽보고 이야기를 하는 느낌을 받아 매우 답답했으며 오늘 회의 역시 그러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상임이사회 정관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다"며 "이 정관을 보면 마치 교협을 상임이사회의 특정인들만의 사유화가 된 듯한 인상을 받으며 현 회장단들이 이러한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남가주교협의 위상은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 강하게 지적했다.

수년간 내용을 겪어 위상이 바닥까지 내려갔던 남가주교협은 지난해 교협위상 회복을 위해 한기형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하지만 1년이 지나 새 회장단을 선출하는 총회에서 또다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됐다. 다시 소집될 50회 총회가 무너진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홀러튼장로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
홀러튼장로교회는 노진걸 원로목사 추대 및 황인철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8일(주일) 오후 4시에 갖는다. 이날 설교는 서정운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총장)가 하며 집례는 용장영 목사(KPCA 서중노회장)가 맡는다.

▲문의: (714)446-9010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나성제일교회 차성구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8일(주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문의: (213)388-7101

플러신학교한인동문회 송년모임
플러신학교한인총동문회(회장 박진구 목사)가 주최하고 플러한인 M.Div.동문회(회장 신동희 목사)가 주관하는 2019 플러신학교 한인동문회 송년모임이 8일(주일) 오후 5시30분 새장로교회(담임 원영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949)468-9960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이취임식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이취임식이 8일(주일) 오후 4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13)272-6031

소망소사이어티 연례 후원의 밤 행사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연례 후원의 밤인 '2019 소망 Annual Gala'가 12월 8일(주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세리토스 퍼포밍 아트센터(18000 Park Plaza Dr)에서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세상' 주제로 개최된다.

▲문의: (562)977-4580

라크마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이트
라크마(단장 최승호, 뮤직디렉터 윤임상 교수)는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이트 공연을 8일(주일) 오후 7시 한길교회(담임 박찬섭 목사)에서 갖는다. 이날 공연은 헬렌의 메시아를 공연하며 음악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은 피아니스트 이현정, 더블베이스스트 천수경, 소프라노 박선우에게 장학금 지급 및 라크마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시간을 갖는다.

▲문의: (323)327-2227



남가주목사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수석부회장 이정현 목사 회장추대

남가주목사회 제53회 정기총회, 이월금 매듭

남가주목사회(회장 김관진 목사)는 제 5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입회장에 이정현 목사를 선출했다.

지난 11월 19일 오전 10시 프린스턴 바이블대학교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정현 신입회장은 "53대 회장으로 책임감을 느낀다. 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들의 수고와 헌신 잊지 않겠다. 그들이 있었기에 이 자리가 있다. 그들의 노고와 헌신을 계승해 목사회 위상을 높이는데 힘쓰겠다. 전임회장들이 했던 일들을 계승하고 각 단체와 상생하며 나가겠다. 전 통을 이어 목사회가 반듯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들 재교육을 위해 성경, 영성, 사모 세미나 등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진 목사 사회로 열린 총회는 박세현 목사 기도로 시작, 회원점명, 개최선언, 전회

의록 낭독, 활동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공천위원회 보고로 이어졌다.

공천위원회에서 공천된 이정현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박수로 추대했다. 안건토의에 선 수석부회장 선임문제, 회칙 변경 문제가 다뤄졌다.

지난 회기 때 제기됐던 3천 달러 이월은 51대에서 이월이 되지 못해 52대로 넘어가는 걸로 합의, 2300달러가 넘어왔고 7백 달러가 남게 됐다.

한편 총회전 이정현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는 강태광 목사가 기도했으며 이태환 목사가 '신앙의 3단계'(히11:4-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박효우 목사가 축도했다.

남가주목사회 이취임식은 12월 8일(주일) 오후 4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린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한인 여성사역자 수련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가정폭력예방 한인여성사역자 수련회

한인가정상담소 주최, 14명 이수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는 지난 11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한인 여성사역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1박2일 교육수련회를 홀리스피리트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기독교사역자 14명이 참석해 가정폭력의 정의와 종류, 성폭력 등에 대해 배우고, 한인사회 가정폭력실태예방 방안들을 토론했다. 앞으로도 한인가정상담소와 협력하며 건강한 한인사회, 한인가정을 만들어 가는 일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는 지난 11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한인 여성사역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1박2일 교육수련회를 홀리스피리트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기독교사역자 14명이 참석해 가정폭력의 정의와 종류, 성폭력 등에 대해 배우고, 한인사회 가정폭력실태예방 방안들을 토론했다. 앞으로도 한인가정상담소와 협력하며 건강한 한인사회, 한인가정을 만들어 가는 일에 동참하기로 했다.

▲문의: (213)235-4848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남가주밀알선교단 대통령봉사상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114명...9명은 상원의원상 수상

남가주밀알선교단 대통령봉사상 시상식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 대통령봉사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30일 오전 11시 써니사이드교회(담임 조성백 목사)에서 열렸다.

이종희 단장은 "해마다 분선교단에서 봉사한 분들에 대한 대통령봉사상 시상식을 연 말에 갖고 있는데 올해는 114명이 받았고, 9명이 캘리포니아 샤론 퀵실바 상원의원상을

받았다"며 "꾸준히 봉사하는 봉사자들 덕에 사랑의 교실이 운영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남가주 밀알선교단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에서 학생들이 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뿌리가 내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주최 3대가 소통하는 기적의 대화법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이영숙 박사가 강의중 실습을 인도하고 있다

'3대가 소통하는 기적의 대화법'

소망소사이어티 세미나, 강사 이영숙 박사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3대가 소통하는 기적의 대화법' 세미나를 11월 22일 오전 10시30분 라팔마연합감리교회(담임 김도민 목사)에서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이영숙 박사(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이영숙 박사는 "좋은 성품은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좋은 성품을 가진 자는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는 자"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좋은 성품 12가지는 성경에 나와 있다"며 "하나님은 감사를 향기라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

식을 다른 이와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다. 감사는 고마운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주신 고귀한 성품이다. 감사는 내형편이 절망적일 때도 감사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는 부메랑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은 좋은 성품의 하나님이고 우리 일거수일수족을 다 아신다"며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은 더욱더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글로벌선진학교 교사 모임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기독교 교육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글로벌선진학교 1.5세, 2세 이중언어 교사모집

글로벌선진학교(이사장 남진석)는 지난 20일 JJ그랜드 호텔에서 남가주 지역 교계 지도자와 언론사들을 초청해 학교 소개와 함께 미주지역 1.5세 발 학제지역 국가 우수학생 장학 후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남진석 이사장은 "글로벌선진학교는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성숙한 인격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맞춤형 진학지도, 창의융합 STEAM 교육, 글로벌 프로젝트 등 다양한 학습 및 특활 프로그램을 통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남 이사장은 "글로벌선진학교는 다수의 졸업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양질의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을 믿음 안에서 가르치고 지도할 크리스천 이중 언어 또는 영어 어민 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글로벌 지도자 양성에 뜻을 품은 남가주 지역 기독교 교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원 자격은 이공계 학사학위 소지자, 영어 등 어문학, 인문학 전공자, 경제, 경영, 사회, 언론, 재무, 역사, 인류학 전공

자, 성경, 신학, 기독교교육 전공자로 교육 선교사역에 관심 있는 한인 1.5세 및 2세대.

연봉은 한국 캠퍼스 교사는 한화 3,250만원(세전) 미국 캠퍼스 교사는 미화 35,760달러(세전)며, 한국캠퍼스 교사로 2년 이상 계약을 할 경우 왕복항공권, 일부 이사비용 지원, 의료보험, 기본 가구가 구비된 개인숙소 등이 제공된다.

한편 글로벌 선진학교 펜실베이니아 캠퍼스는 저개발국가 출신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인도주의적 교육 정책으로 FAD(Faith Aim Dream)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혜택을 주고 있다.

FAD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의 3명의 학생이 졸업했고 현재 중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르완다, 카자흐스탄, 몽골 등지에서 총 10명의 학생이 장학혜택을 받고 있다.

글로벌 선진학교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Joshua Kang(학 교장, 717-830-9356/joshua@gemgem.org 또는 Joon Nam HR 담당, 714-710-2674/joon@gemgem.org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올바른 성 가치관 전파에 앞장”

한동협 정기총회, 교단총회장·동성애전문가 중심 조직재편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가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현직 교단 총회장과 동성애 전문가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총대들은 대표회장에 김종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과 신수인 예장고신 총회장, 류정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을 추대했다. 상임고문은 이영훈 정서영

채영남 장종현 김장환 윤석진 최홍준 소강석 목사, 김승규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사무총장에는 홍영태 목사가 선임됐다.

김종준 대표회장은 “반성경적인 동성애 문화가 대한민국에 확산되지 않도록 바른 성가치관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반동성애 전문가들과 함께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신수인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를 보

호하는 한동협의 사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협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협력기구로 교회의 동성애 반대 정책 수립과 전략 개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2016년 설립됐다.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길원평(부산대) 이상원(총신대) 신원하(고려신학대학원) 제양규(한동대) 이상현(송신대) 교수, 조영길 지영준 변호사, 염안섭 수동연세의료원장,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 등 동성애 전문가들이 한동협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하라”

400여 단체 300여명 ‘개정발의지 및 개정촉구대회’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는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개정발의 지지 및 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네트워크에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한국교회교단장회의의 등 4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등 44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공동발의한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12일 발의됐다가 철회된 뒤 다시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인권위법 제2조 3호 차별금지 사유 중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성적지향’ 조문을 삭제하고 ‘성별’에

대한 정의를 ‘남녀 성별’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강석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부총회장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소 목사는 “동성애자를 공허히 여겨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성적지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성별이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도 없고 후천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시대와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잘못됐다고 선지자적 외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발표한 개정 반대 성명에 대한 반박문을 받

표했다. 그는 ‘국제 인권 사회의 신뢰에 반한다’는 최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전 세계 206개국 중 70%는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없다”면서 “국제법과 유엔 조약에서도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해도 동성애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민·형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류정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동성애는 치유와 전도의 대상”이라며 “교회는 음행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도와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순교적 각오로 적극적으로 막아내자”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삼복 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 김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등 전국 목회자와 성도 300여명이 참석했다.

경남지역 성도들 ‘퀴어행사’ 저지 집회

3000여명 창원시청 앞에서 대성회

경남지역 교회가 ‘퀴어퍼레이드 반대 경남대성회’를 30일 경남 창원시청 앞에서 개최했다. 3000여명의 성도들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경남퀴어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성애 반대 자유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외쳤다.

15년간 동성애자로 살다가 탈동성애 한 박진권 아이미니스트리 대표는 동성애가 성중독이며 탈동성애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동성애자로 살면서 많은 남성을 만났지만 남은 것은 심리

적 고통과 질병뿐이었다”면서 “탈동성애 뒤 깨달은 것은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으며 당사자를 파멸로 이끄는 성중독’이라는 점”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녀의 동성애를 뜯어말리는 부모를 차별·혐오주의자로 몰아 인륜을 저버리게 한다”며 “퀴어행사처럼 문란한 동성애 문화를 퍼뜨리는 행사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훈 울산대 법철학 교수도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온 동포들을 복속시킨 사람들이 감히 인

권을 말한다”면서 “한국교회가 거둬온 인권 평등 차별논리 앞에서 진정한 자유와 인권, 민주를 되찾으려면 고통스럽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연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신앙인은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동성애 행위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면서 “그런데 동성애 옹호·조장론자들은 객관적 사실과 반대 의견조차 인권침해, 혐오, 차별로 낙인찍고 제한하려 한다. 그야말로 독재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퀴어 측은 민주노총 회원, 정의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자체행사를 열었다.

CGNTV ‘고고송’, 다큐 ‘인플루언스...’

올해 ICVM이 뽑은 최고의 해외 영화 선정

CGNTV가 제작한 드라마 ‘고고송’과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이 지난 16일 미국 테네시주 프랭클린시 쿨 스프링스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ICVM 크라운 어워즈’에서 최고해외영화상, 여우조연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했다.

ICVM(International Christian Visual Media)에서 주최하는 크라운 어워즈는 국제 기독교 콘텐츠 시상식으로 영화와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에서 우수한 콘텐츠를 뽑아 시상한다.

총 18개 부문의 시상식이 이주

어진 이번 시상식에서 CGNTV는 드라마 ‘고고송’이 ‘최고해외영화상(Best International Films)’, ‘여우조연상(Best Supporting Actress)’ 2개 부문을 수상했다.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은 제작비 5만 불 이상 다큐멘터리 부문 ‘동상’과 ‘베스트 시리즈(Best Series)’ 동상을 받으며 호평을 받았다.

드라마 ‘고고송’은 윤은혜, 지일주 주연의 드라마로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고고송’은 지난 8월 제

천국제음악영화제에도 초청됐다.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은 LA다저스 투수 커쇼,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 전 SK 와이번스 힐만 감독 등이 스포츠를 통한 선교의 영향력을 증명하며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CGNTV는 2017년 다큐멘터리 ‘블랙아웃’ 2018년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에 이어 3년 연속 ICVM 크라운 어워즈 수상에 성공하면서 콘텐츠의 완성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올해 수상한 드라마 ‘고고송’과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는 CGNTV 홈페이지 또는 CGN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1심 “비방 목적 인정하기 어렵다”

‘다자성에 학생’ 에 고소당한 한동대 명예교수 무죄

지난해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한동대 폴리머리 학생 사건’을 언급하며 기도요청을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한동대 명예교수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함지원(판사 권준범)은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 19명과의 단체대화방에 A씨를 언급했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원철 한동대 명예교수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해 11월 교회 카톡방에 “학생 이름은 A입니다. 이 학생은 폴리머리라고 비독점 다자성에 삶을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는 기도요청 글을 올렸다가 A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폴리머리는 집단성에, 난교(亂交)로 1남1녀로 구성된 가족제도를 흔들고 성윤리를 붕괴시

키는 부도덕한 성행위다.

재판부는 “(카톡방에)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방식, 글이 게시된 단체대화방의 성격 및 인적 범위,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변론한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A씨의 실명이 이미 언론에 공개돼 있었고, 표현 자체에서도 피해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글의 내용이 한국교회 목사님들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기도/칼럼

고난을 행복으로 바꾸라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부귀영화, 소원성취, 건강과 안락에 두는 자들이 있다. 과연 그러한가? 이러한 자들은 고난이 오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길 것이다. 고난이 있으면 불행하고 고난이 없으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없기에 고난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없기에 고난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만나게 된다. 누가 더 행복한 자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한 확실한 신앙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고난 그 자체는 불행의 요소가 아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고난을 통해 가난한 심령이 되고 천국을 경험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지만, 고난이 올 때 원망하고 걱정만 하면 불행

로 끝나게 된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하는 말이 있다. 고난은 하나님의 휘파람이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다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게 된다. 옴은 고난을 당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 다윗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요나는 고난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였다.

고난을 통해 배워야 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면을 성찰하면서 광야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죽기까지 순종하는 법을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배우셨다. 그래서 죄인의 구원자가 되시고 순종하는 자의 분이 되신 것이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불행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고난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행복으로 바꾸는 자들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사119:71).

bible66@gmail.com

“미혹 신도 21만명...몸집 불리고 있다”

세이협, 신천지 사기 행각 소개 대책 촉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빠진 국내외 신도가 21만명을 넘어섰으며, 신천지의 ‘10만명 수석’ 주장은 허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협의회(세이협,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는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신천지의 종교사기 행각 사례를 소개하고 교회와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촉구했다.

신현욱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장은 “신천지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외 신천지 신도는 20만 2899명이었다”면서 “이후 5개월 만에 7344명(3.4%)이 증가해 21만243명이 미혹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가 지난 10일 경기도 고양과 부산, 광주에서 10만명이 수료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실제론 4만6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숫자까지 부풀려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신도들의 사기를 울리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목적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신 소장은 “신천지의 포교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신천지 비밀교육 장소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 ‘신천지 위치알림’을 적극 활용하고 교회마다 이단전문 상담요원을 육성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천지가 수험생에게 집중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덕술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서울상담소장은 “신천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해방감에 들든 수험생들을 미혹하기 위해 등교 시간대에 맞춰 고등학교를 찾아가 홍보하지만, 실제론 4만6100여

교인들이 대학 선배를 사칭하거나 버스킹 공연, 위장 뮤지컬 공연, 설문조사로 휴대전화 번호 등을 수집한다”면서 “심지어 위장 남친구, 여자친구를 만들어 미혹하고 신천지 실체가 드러나거나 목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헤어지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신용식 대표회장은 “신천지가 한국 최대의 사이버 단체가 되기 위해 몸집을 키우고 있으며, ‘올해 수료생 10만명을 배출하라’는 이만희 교주의 특명에 따라 포교가 극렬해지고 있다”면서 “정통교회는 물론 신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반인과 해외로까지 포교망을 넓혀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진 대표회장은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신천지 신도들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한국교회는 특히 신천지 교주 사망 이후 피해 신도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신천지 교리의 해괴한 실상을 폭로하고 회복프로그램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장백석, 부총회장 직선제 폐지

과열선거 막고 자질검증위해 후보추천위 운용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이 목사부총회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리더십이 검증된 인사를 추천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사회법 소송자에 대해선 면직 규정을 대폭 강화했으며, 목회자 정년은 75세로 연장했다.

예장백석은 19일 서울 서초구 총회회관에서 헌법 및 규칙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단독 목사 부총회장 후보를 내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금권·과열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사가 총회에 진출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총회장과 교단 원로목회자,

중진인사 등 덕망 있는 목회자 7명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목회자 면직 규정을 개정하고 ‘각 처리회의 문제로 인해 사회 법정에 고소·고발을 했을 시 면직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불필요한 소송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다만 교회 존속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재판국의 임무에 ‘재판국은 기소장을 접수한 후 먼저 20일간 화해 조정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분쟁의 시시비비를 먼저 가리기보다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키로 한 것이다.

교단은 과거 목회자 정년이 70세였지만 공동의회의 요구에 따라 3년 연장할 수 있었다. 이

번에 75세로 연장하면서 은퇴금은 70세에 은퇴할 경우 15년으로 산정하고, 75세 정년을 채우면 10년으로 산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시무 기간 연장에 따른 혜택은 축소했다.

총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예훼손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헌법 시행체제에 ‘(교인은) 개인의 부당한 주장을 달성할 목적으로 SNS나 인쇄물을 배포하여 균중을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장종현 총회장은 “이번 헌법 개정은 교회 법질서와 권위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고소·고발을 줄여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총회 존재 목적에 충실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특히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는 과열선거를 원천 차단하고 실력 있는 인재가 총회를 이끄는 획기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만약 삼급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카톡방에서 기도요청하는 게 힘들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비슷한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라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교회의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기독교시민단체인 GMW연합을 운영하는 서요한 목사 등 15명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8면에서 계속)

독일어로도 1434년에 첫 번째 책이 번역될 정도였다. 토마스 ‘오늘의 경건운동’(Devotio Moderna)이 추구하는 경건의 내용들은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터에게서 그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도 이와 호흡을 같이한다. 이 책은 경건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경건주의의 시조격인 요한 아르토도 이 책을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교회와 개인경건의 심적 틀을 마련하였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 22세에 이 책을 읽

고 참 종교는 심령 안에 자리를 잡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책을 통해 자주 위안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현대의 순교자요 신학자인 분회퍼 목사도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 라틴어로 이 책을 읽으며 묵상에 잠기곤 하였다.

이 책에 나오는 시대적으로 동떨어진 세계상이나 진부한 눈조를 뒤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경건을 향한 토마스의 예리한 지적과 포근한 권면이 들어있기에 그 영향력은 오늘날도 지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younsuklee@hotmail.com

“우울증과 영적 치유” ⑦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육, TPPM대표

영적 회복과 치유

1. 절망

내가 이십대 초반에 여동생이 차사고로 죽고 난 후 난 길은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때가 아마도 내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것이다. 나는 고통과 슬픔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여동생을 잃기 전부터 나는 벌써 절망의 영에게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알코올중독자 아버지의 난폭한 성격과 폭력적인 행위가 내 절망의 요인이었다. 여동생의 죽음은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깊게 상처 난 감성의 촉매제가 되었다.

어린 시절의 힘든 상처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봄으로써 생긴 것으로 인한, 분노, 분개, 소망 없음과 무기력을 주는 영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었다.

한번은 아버지가 어머니의 살을 담뱃불로 지지려는 것을 본 내가 중지시켰던 기억이 있다. 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어떤 인간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도 무시하고 상처를 줄 수가 있단 말인가, 더구나 자신의 가족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난 아버지를 증오했고 그때부터 삶이란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것을 서서히 믿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사람

이 다 고통 받고 있고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내 우울증이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뒤돌린 사고. 내가 고통 받고 있었던 이유는 파괴적 음성에 대항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을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경 읽기를 게을리 했다.

나는 또한 근심과 두려움의 영으로 수년을 고통 받았다. 나는 계속해서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날마다 걱정하고, 밤에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을까를 의심했다.

2. 괴로움

나는 절망의 음성으로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근심과 두려움으로도 신음했다. 게다가 밤이고 낮이고 마귀가 괴롭히는 감성적, 영적 고통으로도 시달렸다. 여동생이 꿈에 나타나 때마다 무엇인가가 항상 내 목을 조르는 것으로 꿈에서 깨

어났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지만 금세 깨어나지는 못했다.

그러한 악몽은 나를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으니 낮 동안에는 심한 두통으로 시달렸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손을 얹고 기도 해주셨는데, 내 두통은 사라져 버린다.

어머니는 꿈에 나타나는 내 동생이 진짜가 아니고 마귀가 동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목을 조이는 형태로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 말씀해주셨다. 마침내 영적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왜 그랬

있을 때 성경책 읽기를 권하셨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서 들었던 조언보다도 가장 유익한 것이었다.

3. 영적 권능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나는 항상 내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왔었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도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으니까.

그것은 나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다. 하나님께 나의 죄

움만 가져다주었다.

다른 서적을 읽을 때는 그러한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소망과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었다. 내 삶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내가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삶의 희망과 영적인 힘을 얻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어찌된 일인지 내 영적인 상태는 육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내가 더 많은 영적 통찰력을 얻었을 때, 육체적으로도 더욱 강건해졌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고 정말 놀라웠다. 그때부터 나는 어디든 성경책을 끼고 다니며 읽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정신은 더 맑아졌다.

성경에 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서 수원신학대학을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학대학을 다니면서도 영적인 공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을 뿐더러 집에서 아버지와 갈등으로 힘들었던 문제도 해결되는 않았다. 아직도 내 인생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기는 힘들었다.

yonghui.mcdonald@gmail.com

여동생 죽음, 아버지 학대... 고통 중에 영안 떠저

우울증으로 고통당할 때 어머니가 성경읽기 권면

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고 절대 평안하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평안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늘 책을 읽었다. 아주 흥미로운 철학서적이거나 심리학서적을 많이 읽었지만 그 어느 책에서도 삶에 대한 해답이나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을 알려주지 못했다. 그 책들은 오히려 혼돈과 두려

는지 혹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안 나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귀신들린 얼굴을 보았다. 나는 정말 혼동되며 흐릿해지는 정신으로 고통당하게 되었다.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내가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드라마 신약 ⑨



김덕수 목사
(생태사역원 LA지부장/하늘소망교회 담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화요일 신학 논쟁과 감람산, 다락방, 포도나무강론 현장에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강론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과 4번의 재판 끝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장면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이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나이들이 예루살렘교회를 개척하는 현장으로 함께 동행해보겠습니다.

유다를 대신하여 마디아를 뽑아서 제자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강림사건은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행2:16-21)이라고 설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의 수가 수천씩 늘어나며 예루살렘교회

니다. 이 모함에 대하여 스테반은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자들이 마음에 찌러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박해는 극심해졌고, 예루살렘에 있던 믿는 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행8:1). 교회는 핍박 때문에 흩어진 것 같았지만, 스테반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고 그 순교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스테반 순교의 3파장

첫 번째 파장의 주인공은 빌립,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고넬료입니다. 스테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 중에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되심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때 큰 이적과 표적이 사마리아에 나타났고, 많은 사람

9:32). 룩다에서 에니아라는 중풍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고, 욕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욕바에서 사역할 때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고,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보자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보자기에는 부정한 짐승이 담겨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던 경건한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지금 욕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있던 중

물게 됩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음식도 먹을 수 없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삼베라의 남편과 동명이인)를 보내십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를 받은 후에 눈을 뜨게 되었고,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울은 즉시로 다메섹을 다니며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제 사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살해위험을 받은 사울은 다메섹을 탈출하여 아라비아로 가서 약 3년을 머물다가 다시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러 갑니다. 예루살렘에 심오 일을 머무는 동안 야고보 사도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울에 대한 경계심을 놓지 않은 사도들을 대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인 다소에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 파장의 사울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세 번째 파장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파장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두로와 시돈 지역)와 구브로 섬뿐만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본부교회는 바나바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는 현재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초청하여 함께 동사모회를 시작합니다. 수리아 안디옥교회는 앞으로 이방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며, 사울(앞으로 바울이 될)의 담임목회 교회이자 사울의 든든한 선교후원교회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스테반의 순교의 결과로 동시에 진행된 3개의 파장들입니다. 한 사람의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행 1:8’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강림과 교회개척 이후에 온 유대를 거쳐,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에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헤셀갈이 등장한 사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선교여행에 함께 동행해보겠습니다.

dsukim@gmail.com

부활이후 예루살렘교회 개척 ‘성령’과 ‘증인’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잇는 중요 단어 스테반 순교 후 3개 파장으로 주님 지상명령 시작돼

가 부흥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은 몹시 싫어하며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앓은뱅이 된 사람을 고친 사건(행3장)을 시작으로 박해는 본격화됩니다.

스테반의 순교사건

교회가 부흥하면서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더불어 교회 내부에서도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문제를 비롯한 교회회정을 맡을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테반이었습니다.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유민의 회당(리버디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스테반이 율법을 거스르는 자”라고 말하며 스테반을 모함함

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다.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교회에 파견했습니다(행8:14-15). 파견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사역할 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빌립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가사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교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사도와 가이사라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을 때, 사마리아교회로 파견을 나왔던 베드로와 요한도 열심히 사마리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행

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짐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그들도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첫 번째 파장이 진행되는 동안 두 번째 파장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파장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스테반의 순교현장에 있었던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화려한 빛이 비취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눈이 멀게 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



지은이 김성국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책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04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원로칼럼

에필로그-더 하고픈 말(중)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3)생수, 퍼 올리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 물은 절대적이다. 물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구 표면은 70% 이상이 물로 덮여 있고 사람 몸속에도 70% 이상이 물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널리 있는 게 물 같지만 인간이 먹고 마실 민물은 한 그릇 비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물은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다. 짐승도, 초목도, 곤충도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물은 제한되어 있고 점점 고갈되어

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도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다. 물은 아끼고 또 아껴야 할 생명줄이다. 오염수나 썩은 물을 마시면 생명에 치명상을 입는다. 그래서 생수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목회자의 강단, 얼마나 소중한 시공간인가. 목회자에게 주어진 그날, 그곳, 그 강단은 천사도 부러워할 말씀선포의 현장이다. 그런 그곳에서 부패한 먹거리리를 나열하고 오염된 식수를 제공하려 든다면 그건 죄악이다. 금쪽같은 시간에 잡담을 늘어놓는다는지, 자기 자랑으로 시간을 메운다는지, 먹어선 안 될 먹거리리를 강요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생수를 퍼 올리자. 생수는 곧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빠진 설교, 예수 없는 교회, 기본도 못 갖춘 총회, 연합기구는 막을 내리자.

4)조연으로 내려앉자

돌이켜 보면 필자의 경우 내가 주연이고 예수는 조연일 때가 많았다. 이 점을 뼈아프게 통회한다. 계획도, 결정도, 진행도 내가 했고 박수도 내가 받았다. 이런 불효, 가당찮은 망발을 밤 먹듯 되풀이 했다. 주님의 종이면서 주인공처럼 굴었고, 필요를 따라 주님을 찾고 부리려 들었다. 내가 일궈냈다고 여기는 그것들, 교회들, 값나가는 것들, 내 것인가, 주님의 것인가? 기본적 분별력도 없이 서둘러 섰던 지난날의 목회행태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종처럼 굴고 산 것이 10일이라면, 주인공처럼 굴고 황제인 양 산 것은 천날 만날 이 넘는다.

드라마의 경우 주연 못지않게 조연의 역할이 두드러질 때가 있다. 조연은 이 드라마 저 드라마 가리지 않고 그 역을 멋지게 해낸다. 출연료 수입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주연은 항상 주님이셔야 한다. 나는 조연에 머물러야 하고 그 질서가 망가지면 설 자리도, 앉을 자리도 없게 된다. 탈 없을 때 조연으로 내려앉는 게 훨씬 좋다.

5)흔들려도 가라

국립발레단 예술 감독 강수진은 모 잡지와 인터뷰에서 “예술에 ‘됐다’라는 표현은 없는 것 같다”라고 했다. 목회도 이만하면 됐다가 없다. 완주할 뿐이지 완제품은 없다.

목회란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이만저만 흔들리는 게 아니다. 흔들리다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포장도로가 나올 때까지 견디는 사람도 있다. 목적지 진입은 견디는 사람 몫이다. 의도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흔들리는 패거리 축에 끼인 사람도 있다. 기록도 2천년 역사를 반추해 보면 어느 때, 어느 곳을 막론하고 흔들리는 세력은 있었다. 고라와 그 일당은 모세를 흔들었고, 암살범은 부왕 다윗을 흔들었다. 바울을 흔든 건 기존 세력집단인 율법주의자들이었다. 그렇다고 가던 길을 멈춘 일은 없었다. 그리고 결국은 흔들던 그네들이 깃발을 쫓거나 쇠퇴했다.

문제는 나한테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으면 발목이 잡혀 걷기 힘들어진다. 남의 허물은 덮어야 하지만 내 허물은 주 앞에 드러내고 용서 받는 게 상책이다. 그래야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고 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다. 흠먼지 길, 자갈밭 길, 산속 오솔길, 황량한 광야길, 경사진 내리막길도 개의치 않고 가는 사람만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 흔들려도 가는 게 목회다.

인/터/뷰

이금범 선교사(안경사역)

“안경 통해 마음껏 세상을 볼 수 있게”

“멕시코 티화나에 있는 고아원과 감옥에서 나온 자들, 그리고 볼리비아에 있는 시력이 약해 앞을 잘 못 보는 자들이 제공된 안경을 통해 마음껏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으면 합니다.”

지난 10년간 안경사역을 통해 눈이 불편했던 많은 이들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금범 선교사. 그는 멕시코와 볼리비아 등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안경교육을 통해 시력이 안 좋은 현지인들에게 안경을 보급하고 있다.

처음 안경사역을 할 때엔 가르침에 대한 은사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는 이금범 선교사는 지속적인 선교사들과 만남을 통해 안경사역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이라 여기게 됐다고 말했다.

“저는 성격상 앞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걸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도에서 선교사님이 안경을 배우러 오셨어요. 돌려보내고 싶었는데 멀리서 오신 분이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나신 몇 달 후 탄자니아에서 그리고 또 며칠 후 캄보디아에서 안경을 배우고 싶다고 저를 찾아오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제가 안경교육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 선교사는 의료선교를 하던 목회자들과 함께 선교사를 교육하게 됐다. 한국에서 안경광학과를 전공했고 미국이민 후 어메리칸커리어칼리지에서 광학전문가 과정을 졸업하고 안경라이센스를 취득한 이 선교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배운 지식을 적절히 접목해 선교사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출석한 그는 2009년부터 해마다 의료선



이금범 선교사

교를 하고 있다. 의료선교는 크게 현지 선교사를 위한 안경강좌를 개설하고 안경강의를 하는 것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안경판매를 하는 것이다.

“현지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안경강좌를 하는 것은 일종의 직업교육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예전과 달리 복음만 전하는 것에

“의료선교 시 눈 검사가 가능한 곳이 기계가 설치돼 있어요. 하지만 기계가 노후돼 성능이 좋지 않아요. 기계 가격은 10,500달러이고 할부로 구입하게 되면 총 비용이 13,500달러 들어갑니다.”

초창기 안경사역을 할 때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와 산타마리아 비치에 있는 주민 대상으로 눈 검사를 한

눈앞에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너무 비용에 연연하지 않고 사역하게 됐습니다.”

현재 LA에서 Optica El Rey라는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금범 선교사는 자신의 가게가 안경사역 현장이라 여긴다며, 안경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구매자들에게 안경가격을 그들이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안경 값이 100달러 내외입니다. 선교현장에서 만난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폐휴지를 모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자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얼마가 있는지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비용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40달러, 어떤 분은 20달러, 하지만 그 비용으로 안경에 대한 모든 비용을 맞춰드립니다.”

이 선교사는 안경선교사역을 처음 할 때는 중고 안경테를 제공했지만 마음이 불편했다며 그 이후엔 유행이 지난 새 제품으로 했고 현재는 완전한 신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교현장에 찾아갈 땐 예상보다 하루 혹은 이틀 더 머물게 되며 이로 인해 본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며 교회출석을 못하게 되는 것이 교회에겐 미안하게 생각되지만 자신의 작은 섬김으로 인해 한명이라도 세상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말했다.

선교지 안경사역 뿐 아니라 선교사 직업훈련도 비즈니스현장도 선교지... 구매자 맞춤가격 실시

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직업훈련까지 겸하게 해야 사역이 부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팀이 갔을 때 선교사들에게 미용, 용접 등을 교육하여 현지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안경사역 역시 마찬가지고요.”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은 시력검사를 비롯한 눈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라 말하는 이 선교사는 눈 검사는 기계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며, 선교지에 설치돼있는 기계는 노후 돼서 교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적이었다는 이 선교사는 당시 기억이 안경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눈 검사를 한 후 들어간 비용이 100불이 넘어선 분이 계셨었어요. 여러 명이 합쳐서 100불이 나오는 것이 라면 안경을 맞출 수 있는데 비용이 맞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결국 그분에게 안경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가장 절실히 안경이 필요했던 분이었는데도 말이예요. 그런데 선교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 그분이 자꾸

며 이러한 일을 통해 기뻐하는 분들을 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고백했다.

지난 11월에는 멕시코 티화나에 있는 고아원과 출소자들을 위한 사역에 이어 내년 2월중 볼리비아에서 안경사역을 계획 중인 이금범 선교사는 많은 후원자들이 선교지에 시력검사 기계마련을 할 수 있는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213) 408-5940 (박준호 기자)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영어로 보는 성경 (45)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John 1:1-4

- 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 2)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 3)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 4) In him was life, and that life was the light of men.

(NIV 1984)

WORD & IDIOM

* in the beginning: 태초에, 처음에 * through ~: ~를 통하여 ~에 의하여 * nothing: 아무 것도 (아니다, 없다), 아무 것도 아닌 것 * with ~: ~와 함께 * all things: 모든 것 * without ~: ~없이

GRAMMAR

1) In the beginning was① the Word,
태초에 있었다 (그) 말씀

and the Word was② with God,
그리고 (그)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and the Word was③ God.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2) He was④ with God in the beginning.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에서 <in the beginning>은 <전치사구>로 부사의 기능을 갖는다. 이와 같은 부사의 기능을 갖는 <전치사구>는 문장의 앞뒤에 올 수 있으며 이것을 강조할 경우는 문장의 앞에 둔다. 이 경우 뒤에 오는 문장의 어순이 <동사+주어>로 바뀐다. * <was>는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 쓰이는(is)의 과거형으로 ①②④번은 1형식 문장(주어+동사)을 이루는 <있었다>라는 존재의 의미이며 ③번의 <was>는 2형식 문장(주어+동사+보어)에서의 <~이었다>라는 의미이다.

3)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이 만들어 졌다;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 진 것이 없다 만들어진 =>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이 만들어 졌다; 만들어진 아무것도 그가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

* <all things were made>는 <Be+과거분사>의 수동태 문장이다. 즉 모든 것 <all things> 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하나님)을 통하여 만들어졌다는 의미이다.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은 <without him>을 강조하기 위한 도치구문이며 <that>은 <nothing>을 가리키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nothing>은 그 자체가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이 다음의 동사는 부정형을 쓰지 않아야 한다. <that has been made> 수동태의 현재완료 문장으로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 현재까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4) In him was⑤ life, and that life was⑥ the light of men.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 <In him was life>는 <in him>을 강조하는 도치구문이다. ⑤번 ⑥번의 <was>의 의미가 다른 점을 유의하라.

STUDY & THOUGH

■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서의 태초(In the beginning)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상기시킨다. 같은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물리적인 시작의 시간을 의미하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존재의 기원을 의미한다. 요한은 여기서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심을 14절에서 밝히는바 예수님의 존재기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 전 과거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취하신 그 분은 영원 전 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이다.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로 이어지는 기본원리를 발견하게 된다.

■ In the Word, who is Jesus Christ, we can meet God and receive the life of salvation.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왕상19:1-2)

엘리아는 하늘로부터 큰 비가 내리는 순간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아에게 임해 마차가 비를 피해 힘차게 달려가는 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아가 지금은 갑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죽여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기도로 살려냈던 엘리아.. 우상의 대표자들 450명과 대결하면서도 여유만만하게 하나님이 살

아게심을 증거했던 엘리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일곱 번 기도해 큰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아... 이 엘리아가 지금 이세벨의 협박에 인생을 포기하고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까지 엘리아가 행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왕상19:1-3)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역도 그 어떤 능력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큰 일을 행한 후에 오는 실망과 좌절은 우리를 더 크게 좌절되게 합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모

르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교차되는 희비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엘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엘리아도 우리와 성질이 같은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왕상19:1-3)

본문에서 엘리아가 침체에 빠진 이유는 사람을 너무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아는 이제 이 정도면 됐겠지... 이제 이세벨도 두 손 들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독한 이세벨 앞에 오히려 엘리아가 두 손을 들게 됩니다. "내일 죽이겠다"는 말은 엘리아에게 최고의 협박을 가해서 멀리 쫓아내려는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엘리아가

이세벨을 직접 만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눈앞에서 만났으면 또 다시 담대함으로 이세벨을 혼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들려오는 큰일 났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사람의 협박을 두려워하면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목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왕상19:4)

엘리아가 인생을 포기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을 못나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학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제까지는 하나님 한 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았는데 생각해보니 오히려 조상들보다 더 한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아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자신이 무엇인가 이뤄낸 줄 알다가 한 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능력 있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고후4:7).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능함과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욱 강해지고 더욱 그리스도만이 자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금 천사가 어루만지며(왕상19:5)

오늘은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어떻게 회복시키는데 대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심하게 좌절해 있는 엘리아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가까이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가까이 오

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지 않도록 음식을 공급해주셨습니다. 히브리말 "어루만지다" "나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루만져주시기를 말하는데 사랑을 느끼게 하고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손길이십니다. 이 어루만지심의 손길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어루어수록 더욱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왕상19:5-10)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떡과 물을 주십니다. 엘리아는 먹고 또 드러누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깨우셔서 먹이셔서 그 식물의 힘으로 40주야를 하나님의 산 호렘산으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호렘산에 도착해서도 엘리아는 여전히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굴에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계속 굴속

에서 주저앉아 있는 엘리아를 깨우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우리가 낙심되고 탈진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명을 위해서 이제 일어나라고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_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운반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소통능력과 이야기 풀어낼 자질 더 필요!

WP, 미 대학 인문학전공 감소원인과 대책 보도

미국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난 10년간 일어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꼽으라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점점 더 많은 학생이 인문계열 전공 대신 인공계열 전공을 선택하고 있다.

영어영문학을 전공하는 학생 수는 지난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25.5%나 줄었다. 국립교육통계센터가 매년 데이터를 집계한 이래 특정 전공 선택자가 이렇게 빠르게 줄어든 적은 없다. 지난 10년간 전체 대학생의 숫자는

꾸준히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놀라운 일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가를 추적하고, 그 파장을 명료하게 말해준다(The world's top economists just made the case for why we still need English majors English majors are down 25.5 percent since the Great Recession, just as world's top economists say we need more 'storytellers').

이런 시류는 왜 생겨났을까?

학생들이나 교수들에게 물어보면 대개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해야 해서”라는 답이 돌아올 것이다. 초서의 시를 읽는 것보다 코딩을 배우는 게 취업전선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돈을 잘 벌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점점 대학교육을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이들이 찾은 답은 STEM이다.

*STEM=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Math(수학)

이공계 전공, 특히 컴퓨터과학이나 보건의료 분야의 전공을 택한 학생들은 지난 2009-2017년 사이 두 배 늘어났다. 공학, 수학 전공자도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Robert Shiller) 교수가 인문학을 외면하는 시류에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 실러 교수는 자신이 미시간대학교 학부생 때 들었던 역사 수업의 영향력을 떠올렸다. 대공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경제학 수업 시간에 배운 것보다 역사학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이 훨씬 더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실러 교수는 최근 “이야기의 경제학(Narrative Economics)”이라는 책을 새로 펴냈다. 책은 제목에서, 또 실러 교수가 그동안 해온 연구주제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야기가 시장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다뤘다. 비트코인 광풍을 “옆집 누

가 코인사서 벼락부자가 됐다더라(get rich quick)”라는 이야기로, 주택시장에 거품이 끼게 된 계기를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anyone can be a homeowner)”라던 선전문구가 만들어낸 이야기로 풀어낸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데 전통적인 경제학의 접근법은 실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야기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이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을 통해 분석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접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방법론이 바로 ‘이야기의 경제학’이다.

실러 교수는 닷컴버블의 붕괴를 예측해 유명해졌고, 케이스-실러 집값지수(Case-

Shiller Home Price Index)를 만들어냈다. 실러 교수는 연구시간의 많은 부분을 오래된 옛날 신문을 샅샅이 훑는데 쓴다. 언제 어떤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무언가를 사는데 (혹은 그만 사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영어영문학이나 역사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실러 교수는 주저 없이 그렇다고 답했다. “우선 지적 생활



하는데 힘쓰자고 촉구했다. 중앙은행과 경제학자들은 각종 숫자, 지표, 지수를 늘 입에 올린다. 어떤 정책을 쓰는 근거나 정책을 썼을 때 기대되는 효과도 항상 숫자와 지표, 지수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인 건 훌륭한 이야기일 때가 많다. 경제학자에게는 숫자가 중요할지 몰라도 사람들에게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훨씬 많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이 어떻게 경제적인 후생(welfare)을 늘려줄지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내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내려면 이야기의 힘이 대야 할 때가 많다.

로우 총재의 말은 정곡을 찌른다. 실제로 호주는 지난 25년 동안 경기침체를 겪지 않았

관계자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나 발언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다듬어줄 원고작성자(이야기전문가)를 찾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의 스테판 잉베스 총재도 이야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람들이 제게 기대하는 것도 아마 그럴 테고, 저는 실제로 중앙은행 총재가 이야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올 미래를 이야기해주는 사람이죠. 원래 인간은 미래를 내다보고 싶어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부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꾼은 제 직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잉베스 총재는 어떤 의미에서 시장이 중앙은행과 정책결정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평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건네 사람들의 소비심리를 유지하려는 아주 훌륭한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하는 말 가운데 상당부분이 거짓말인 점은 문제지만 이는 이야기의 힘을 적절히 활용한 것과는 다른 문제이긴 하다.

아무리 명망 있는 경제학자가 이야기꾼이 필요하다고 주장해도 인문학 강의실을 지나쳐 코딩을 배우려는 학생(과 그러라고 시키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기에는 큰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전공별로 졸업 후 취업률과 급여를 비교해봤다.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학생은 영어영문학을 전공한 학생보다 평균적으로 졸업 후 첫 직장에서의 급여를 더 많이 받았다. 그러나 통념과 달리 25-29세 사이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한 학생이 컴퓨터과학이나 수학을 전공한 학생보다 취업한 상태일 확률이 높았다.

STEM 전공자들은 졸업 후에는 분명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경력을 시작하지만, 급여 격차는 비교적 금방 줄어들었다. 또 STEM 전공자들은 졸업 후 10년 정도가 지나면 기존의 전공지식과 기술만으로는 구인시장에서 충분한 매력을 지니지 못해 새로운 학위를 받거나 직종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인문계열 전공자들은 10년 정도가 지나면 처음 일을 시작했던 분야에 남아 매니저급으로 승진한 경우가 많았다. 중년이 되면 전공에 따른 급여격차는 사실상 사라진다.

급여격차를 연구한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드밍은 뉴욕타임스에 쓴 외고칼럼을 통해 “40살이 되면 사회과학이나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연봉이 좀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일을 시작한 다른 전공자들의 연봉을 따라잡는다”고 썼다.

결국 매니저급, 나아가 더 높은 곳에서 조직을 이끄는 자리에 오르려면 소통능력과 이야기를 풀어낼 줄 아는 자질이 더욱더 필요하다. 최고의 경제학자들과 여러 중앙은행 수장들이 말한, 세계경제가 성장과 정체의 중대한 갈림길에 선 지금 요구되는 바로 그 능력이다.

대학졸업 후 취업 고려 이공계전공 증가 10년 후엔 전공 따른 급여격차는 사라져

사람이 세상에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러 교수 말고도 많다. 매년 8월이면 와이오밍주 잭슨홀에는 전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과 중앙은행 수장들이 모인다. 전 세계 경제 상황과 과제를 논의하며 거시경제모형을 바꿀 필요가 있을지 회의하는 자리다. 올해 잭슨홀 회의 마지막 날 호주 중앙은행의 필립 로우 총재는 회의에 모인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학자들에게 숫자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꾼이

다. 그 원동력 가운데는 중앙은행의 경제학자들이 내부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자메이카 중앙은행이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은 사악한 것”이라는 내용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자메이카 국민에게 특히 친숙한 레게뮤지션을 고용해 이야기로 풀어낸 것도 좋은 사례다. 미국 연준은 레게뮤지션을 부를 정도로 참신하지는 않지만, 연준 고위

해주는 하나의 거대한 무대에도 같다고 말한다. 중앙은행은 기업가와 대중을 상대로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경제전망을 한다.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풀어내면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주고, 그 신뢰가 높아야만 기업은 계속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자들은 소비에 나선다.

실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집권한 뒤 미국경제가 역사상 그 어떤 시기보다도 가장 잘나가며 전 세계 상황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호황이라고 말하는 것도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실러 교수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STEM 전공자들은 졸업 후 10년 정도가 지나면 기존의 전공지식과 기술만으로는 구인시장에서 충분한 매력을 지니지 못해 새로운 학위를 받거나 직종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인문계열 전공자들은 10년 정도가 지나면 처음 일을 시작했던 분야에 남아 매니저급으로 승진한 경우가 많았다. 중년이 되면 전공에 따른 급여격차는 사실상 사라진다.

급여격차를 연구한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드밍은 뉴욕타임스에 쓴 외고칼럼을 통해 “40살이 되면 사회과학이나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연봉이 좀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일을 시작한 다른 전공자들의 연봉을 따라잡는다”고 썼다.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 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20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 예정자(개혁신학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는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 (이상 4과목)
- b)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 고시 내용

- (1) 구약주해 : 요엘 2:28-32
- (2) 신약주해 : 바드로전서 2:1-10
- (3) 논문제목 : 복음과 율법 관계를 개혁주의 관점에서 논하라
- (4) 설교본문 : 학개 1:1-8
 -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 고시 기간 중 설교실고시를 치름.
-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문은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문은 PDF 파일로 서기에기에 이메일 할 것.
 -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결장과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해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조성훈구약주해.pdf)
 -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c) 면접고시

서류제출요령

- a)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0년 3월 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c) 합격자 발표는 44회 총회기간(5월 12일-15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합격증서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 a) 일자: 2020년 5월 5(화) - 6(수)
- b) 장소:
 - 동부: 퀸즈장로교회(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김성국 목사)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 서부: 에만UEL장로교회(Emmanuel Presbyterian Church, 손원택 목사)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응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20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b)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c)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d) 소속 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e) 이력서(안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 년도와 교회, 세례집행자) 1부
- f) 명함판 사진 2장
- g) 고시료: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장의한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5일-6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제출처

고시부서기 : Rev. Euihan Jang(장의한 목사)
주 소 : 6 Westminster Dr. Londonderry, NH 03053-3436 U.S.A.
전 화 : (603) 553-1991 이메일 : euihan@hotmail.com

기타문의

- a) 고시부 부장 : 한재현 목사 (831) 920-7043 jhanrev@gmail.com
- b) 고시부 서기 : 장의한 목사 (603) 553-1991 euihan@hotmail.com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양수철 목사
서 기 : 한일철 목사
고시부부장 : 한재현 목사
고시부서기 : 장의한 목사